

# 2024 중남미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5



111

237



385



##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핑크타이드 지속하 우파 포퓰리즘 대두, 미국 정치 지형 변동 등 불확실성 확대	6
나. 미·중 경쟁에 따른 GVC 재편의 최대 수혜지 및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위상 제고	9
다. 산업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조짐 확대	11
라. K-Wave의 주류화 및 펜덤 형성에 따른 가치소비 증가	13

##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6
2. 시장 분석	23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23
나. 교역	25
다. 투자진출	28
라. 프로젝트	30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2
가. 교역	32
나. 투자	34
다. 한-중남미 FTA	35
라. 협력 유망분야	35

## III 진출전략

1. 거시 환경 분석(PEST)	42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3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82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93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5

Chapter



---

#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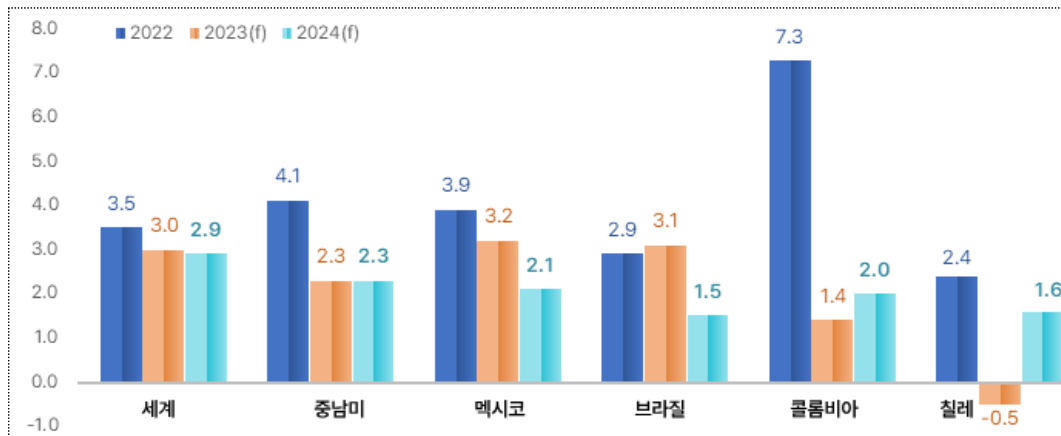
## 개요

### 가. 시장 전망

▣ 고물가, 고금리 따른 급격한 긴축 정책 속 '23년, '24년 각각 2.3% 성장 전망 (IMF, '23.10)

- 금년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압박, 선진국 및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약화, 긴축통화 정책 기조, 사회적 불안 지속으로 세계 성장률(3.0%) 하회 전망
- 다만,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물가 안정세에 따른 역내 각국의 기준 금리 인하 추세, 경기 부양 정책 등을 고려하여 IMF는 금년도 중남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IMF '23년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 1.6%( '23.4) → 1.9%( '23.7) → 2.3%( '23.10)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IMF('23.10)〉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618.3	623.2	629.5	636.0	640.7	645.8	650.7	656.1
명목 GDP	십억 달러	5,489	5,319	5,208	4,343	5,033	5,734	6,322	6,619
1인당 명목GDP	달러	9,203	8,714	8,714	7,344	9,475	8,413	-	-
실질성장률	%	1.4	1.2	0.2	△7.0	6.9	3.5	2.3	2.3
실업률	%	8.0	7.9	7.9	10.3	9.3	7.2	7.5	6.9
소비자물가상승률	%	6.3	6.6	7.7	6.4	9.8	14.0	13.8	10.7
재정수지(GDP대비)	%	△5.1	△5.0	△4.1	△8.7	△4.5	-4.2	-1.8	-1.5
총수출	백만 달러	9,890	10,815	10,480	9,410	11,961	14,142	-	-
(對韓 수출) *	"	17,081	19,332	20,342	20,381	28,439	26,590	24,864	25,610
총수입	"	9,870	10,991	10,562	8,977	12,355	14,974	-	-
(對韓 수입) *	"	28,095	27,768	26,337	19,501	25,817	32,739	24,720	25,462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20	△176	△82	433	△394	△832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58	75	468	△47	418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35	1,520	1,587	862	1,345	-	-	-

주: 2023년,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Worldbank, ILO, ITC Trademap, Statista, 한국무역협회

- ※ (정치)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 및 '24년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 변동성 확대
- ※ (경제) 중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하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 효과 확대
- ※ (산업)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ICT 융복합산업, 그린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강화 트렌드 확대
- ※ (문화) K-Wave의 주류 트렌드화 및 팬덤 형성으로 인한 옴니채널을 통한 K-소비재 구매 확대

## 가. 핑크타이드 지속하 우파 포퓰리즘 대두, 미국 정치 지형 변동 등 불확실성 확대

### ▣ '23년 하반기에 파라과이, 에콰도르에서 우파 후보들의 연이은 대선 승리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강경 우파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23.11.20)됨으로 중남미내 핑크타이드 2.0의 균열이 전망

- 중남미는 2018년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이하 AMLO) 당선 이후 아르헨티나(2019년), 페루(2021년), 칠레(2022년), 브라질(2022년), 콜롬비아(2022)에서 좌파 정권이 출범되면서 핑크타이드\* 2.0의 시대를 맞이함

\* 핑크타이드(Pink tide) :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중남미 국가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다수 집권하는 현상을 뜻하며, 중남미 10개국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했던 1990년대 말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핑크타이드 1.0이라고 함

#### 〈중남미 국별 정권 성향〉



출처: Statista ('23.11)

#### 〈국가별 대선 일정 및 전망〉

국가	성향	임기 종료	주요동향
멕시코	좌파	2024년	집권당 우세
브라질	좌파	2026년	집권당 우세
칠레	좌파	2026년	대통령 지지율 큰폭 하락
페루	좌파	2026년	대통령 지지율 큰폭 하락
콜롬비아	좌파	2026년	대통령 지지율 큰폭 하락
아르헨티나	좌파	2023년	극우파대통령 당선('23.11)
과테말라	우파	2024년	좌파대통령 당선('23.8)
도미니카	우파	2024년	연임 전망
파나마	중도좌파	2024년	지지율 하락세
에콰도르	우파	2025년	우파대통령 당선('23.10)
파라과이	좌파	2023년	우파대통령 당선('23.4)
쿠바	좌파	2023년	연임('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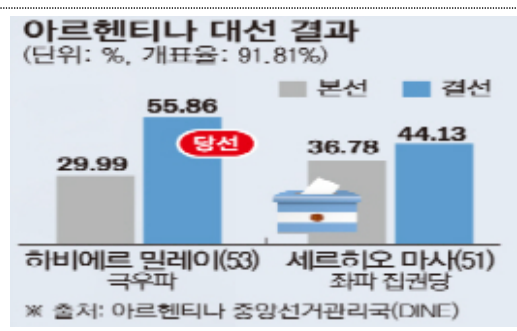
출처: 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 단위: US\$백만

- 하지만, 팬데믹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과도한 복지 지출에 따른 경기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심이 늘어남.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의 양상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1월에 당선된 아르헨티나 극우파의 유력 대선후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경우임
  - 밀레이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장기매매 합법화, 폐소화 폐지, 중앙은행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매년 두 배 넘게 뛰는 물가와 빈곤율 40%라는 최악의 경제난 속에 300만표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됨

〈아르헨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출처: 이투데이 (2023.11.20.)

### 밀레이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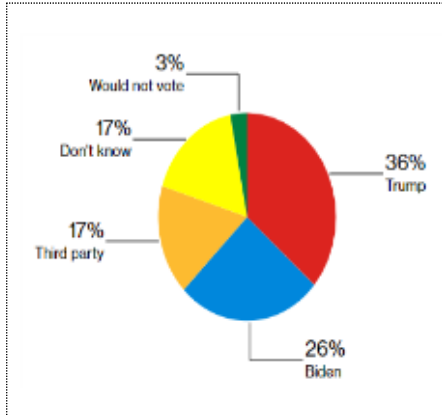
- 1- 비생산적인 국가 비용 제거
- 2- 국가 기능의 최적화 및 축소
- 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4- 적자 공기업 민영화
- 5- 민간 투자 촉진
- 6- 지역, 주, 국가간 상품 이동 및 거래, 신규 투자 시행 및 기존 투자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옵션을 상호 연결하는 국도 네트워크 확장
- 7- 국가 요점 지역 항구 및 공항 건설, 기존 항구 및 공항 개선
- 8- 민간 투자를 통해 지역, 주, 자치시간 상품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고속도로, 국도, 도로 개선
- 9- 국가가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부동산 임대 계약 검토 및 국가 소유의 비생산적인 유휴 부동산으로 대체 관리
- 10- 무역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전역에 걸쳐 제품 거래를 촉진하는 활동 수행을 위한 민간 투자 장려
- 11- 경제정책 3단계 진입시 중앙은행 폐쇄
- 12- 시민들이 통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화 경쟁력 확보 또는 경제의 달러화
- 13- 모든 외환 통제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화
- 14- 수출에 대한 원천징수 및 수입세 철폐
- 15- 환율 단일화
- 16- 국내 전역에 걸쳐 시간, 현행화, 통화 등의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임대법 처리 촉진

자료: Plataforma Electoral Nacional, BAE Negocios 2023.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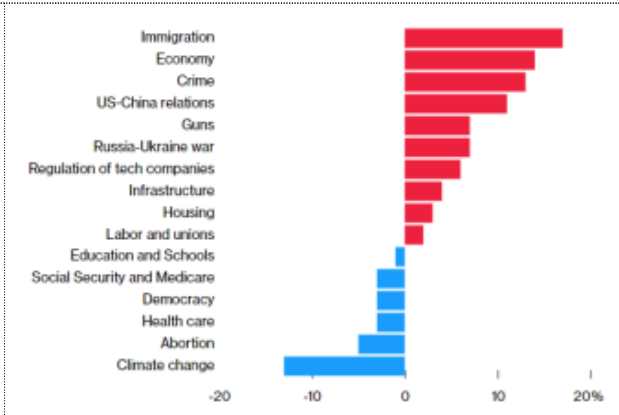
■ 2024년 미국 대선 선호도 조사,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로  
(블룸버그통신, '23.10.19) 미국의 對중남미정책 변동 가능성 다대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다섯 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음

〈미국 대선 후보 선호도 결과〉



〈주요 아젠다별 유권자 선호도〉



출처: 블룸버그/모닝컨설턴트 ('23.10.19)

- 미국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높은 선호도는 향후 미국의 對중남미 통상 및 이민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바이든행정부는 '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 정책'을 폐지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되 불법 이민 처벌을 강화하는 새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정권 교체시 완화적 이민정책의 기류에 변화가 예상됨
  -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IRA와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로 인해 니어쇼어링 특수를 보고있는 중남미의 통상 환경에도 파급이 예상됨



## 나. 미·중 경쟁에 따른 GVC 재편의 최대 수혜지 및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위상 제고

- 미국 정부가 미·중 경쟁 심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며 상대적으로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하고 원자재 풍부한 중남미가 수혜지로 부각

〈美·中 경쟁에 따른 중남미 반사이익〉

미·중 경쟁 주요 경과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
① 2018년 미·중 관세 분쟁	① 니어쇼어링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복합적인 사유로 대중 301조 제재 시행	- USMCA, IRA등 미국의 북미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효과로 글로벌기업들의 멕시코 중심 투자 확대
②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 계기 반목 심화	② 중남미 원자재 수요 증가
-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 및 GVC에 대한 역할 부재로 인한 탈중국 움직임 확대	- 광물 및 식량 자원이 풍부한 對중남미 대형 개발 투자 증가 * 주요광물매장량: 리튬(칠레1위), 희토류(브라질 3위), 니켈(브라질 3위)
③ 미·중간 첨단기술 분쟁 격화	③ 중남미 미·중 수출 의존도 이원화 확대
- 미국의 반도체법, IRA 등을 통한 첨단 IT산업 분야의 미국 중심 질서 확대	-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남미는 중국, 제조업 비중이 높은 멕시코, 중남미는 미국 수출 확대

-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2019),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의 수혜지역인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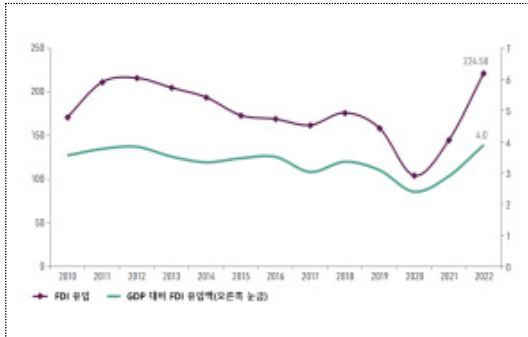
\* '23년은 USMCA 발효 4년차로 원산지 기준이 75%까지 강화

☞ 완성차 및 핵심부품 75%, 주요부품 70%, 보조부품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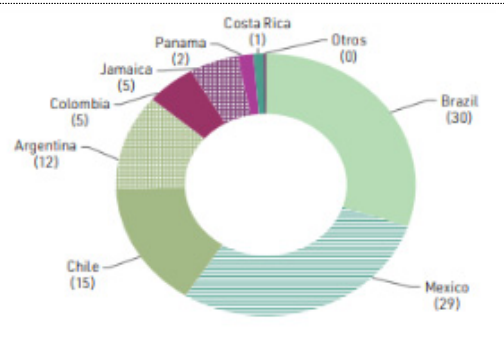
\* IRA('22.08)법: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북미에서 최종 조립, ②FTA체결국으로부터 배터리 광물 조달 비율, ③북미 내 배터리부품 조달 비율을 충족

- 미주개발은행(IDB)은 장·단기적으로 중남미 지역에 780억 달러 규모의 니어쇼어링 수출 효과가 예상\*되며 이 중 절반 규모인 353억 달러가 멕시코에 해당한다고 밝힘.
- 또한, FDI(Inflow)의 경우도 '22년 기준 전년대비 51% 증가한 2,085억불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음
- 이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니어쇼어링 수혜 업종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광산 개발 분야에서 FDI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짐.

〈중남미 FDI 유입 현황〉



〈'22년 對중남미 FDI 국별 비중〉



출처: 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23), 단위: 백만달러, %

## ■ 특히, 니어쇼링으로 인한 주요 수혜 분야로는 완성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항공우주산업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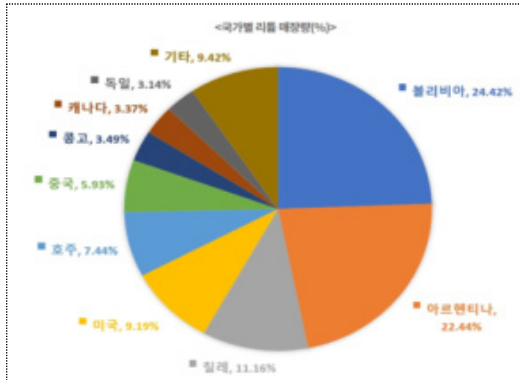
-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자동차 생산에 있어 중남미는 멕시코(7위), 브라질(8위)를 양대 축으로 연간 약 5백 40만대 생산하고 있음. (OICA, 2021) \* 한국은 세계 5위 (3백 40만대)
  - 멕시코에는 43개의 완성차 제조기업 및 2천여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 진출
  - 브라질은 26개의 완성차 제조기업과 57개의 생산 시설 보유
-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법 도입('22)으로 멕시코 등과 같은 우호국 내 반도체 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짐.
- (항공우주산업) 중남미 항공운송수요는 '19년부터 '41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Airbus, '22.7)되며, 멕시코는 USMCA의 혜택으로 브라질은 엠브라에르(EMBRAER)사를 필두로 항공우주 분야의 추가 성장이 예상됨
  - \* 멕시코는 세계 12위의 항공우주 분야 제조국이며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사는 세계 3위 상용기 제조사임.

## ■ 한편, 전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 이상(56%, USGS)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도 두드러짐.

- 중남미 지역의 확인자원량\*(identified resources)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중심으로 높으며, 개발 잠재력 보유
  - \* 확인자원량(identified resources) : 자원 존재 여부는 확인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개발이 어려운 상태의 자원규모를 뜻하며, 볼리비아 2,100만톤, 아르헨티나 1,900만톤, 칠레 980만톤, 멕시코 170만톤, 페루 88만톤, 브라질 47만톤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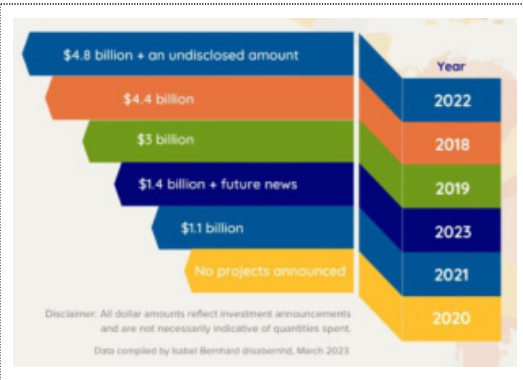
- '22년도에는 전년도의 3배에 이르는 총 480억불을 중남미 리튬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23년 10월에는 중국 칭산홀딩그룹이 칠레 최대 리튬 생산업체 SQM 공장에 2억 3,300만 달러 투자하는 등 1분기에만 140억불을 투자한 바 있음

〈전세계 리튬 매장 비중〉



출처: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의 중남미 리튬분야 투자 추이〉



출처: Latin America Center, Atlantic Council('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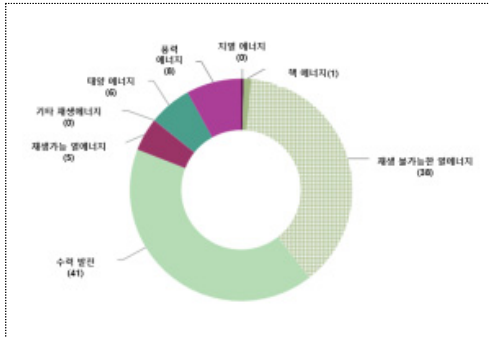
- 이러한 중국의 투자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와 연계되어 중국의 중남미 투자 진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 산업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조직 확대

▣ 중남미는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세계 1위에 해당하며 유럽(19.7%), 북미(13.2%)를 크게 웃돌고 있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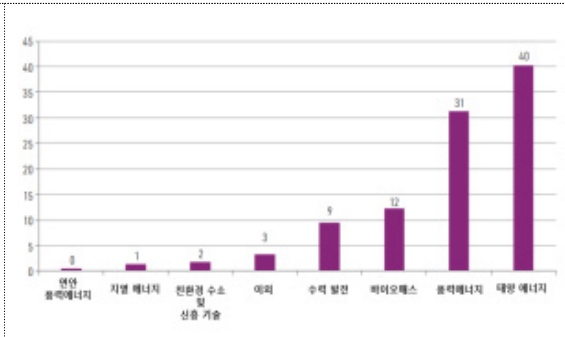
- 하지만, 중남미 전체 지역의 41%\*가 수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매우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칠레 : 영토의 75%가 가뭄상태에 있으며 수년간의 물부족과 기록적인 고온현상으로 '23년 기준 40만헥타르 이상이 화재로 파괴됨
  - \* 우루과이 : '22년부터 '23년까지 가뭄으로 인해 3,6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여 2만 6,000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됨
- 이 가운데 역내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개국의 수력발전 비중은 각각 콜롬비아(73%), 브라질(63%), 페루(49%), 칠레(32%), 멕시코(15%)순으로 높음

## 〈중남미 에너지원 현황〉



출처: Latin American Energy Organization (OLADE)

##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프로젝트 규모 비중〉



출처: 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23), 단위: %

- 이러한 수력발전에 편중된 국가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은 산업·농업 용수 부족,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농·축산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각함
- 이에, 중남미에서는 탈탄소화 정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력발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다각화 노력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이 환태평양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에 취약한바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문제로 검토되고 있지 않음
- 재생에너지 발전 상위 20개국 중 중남미 국가가 총 12개(60%)이며, 중남미 20개 국가의 재생에너지 참여 비율이 전 세계 70% 이상 차지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중남미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시, 2050년까지 약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
- 중남미 내에서는 주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위주로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권이 늘고 있음
  -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온실가스량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50% 감축
    - \* 'Zero Methane Program', '탄소 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 등 세부 정책 수립 중
  - (멕시코) 현 정부(AMLO, 2018~2024)는 이전 정권들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 10대 행동계획'을 발표
    - \* 동 계획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계획을 다수 포함하며 2024년까지 전체 소비 에너지의 35%를 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생산 목표

- (칠레) '15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20.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UN에 제출하며 '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선언함
-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는 2021년 재생에너지(소규모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비중은 전체의 9.8%이며, 2030년에는 15%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힘
- (콜롬비아) 현재 진행된 감축 조치 성과에 따라 '30년까지 30% 감축 목표 수립
- (아르헨티나) 현재 아르헨티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 대비 26% 감축된 349 MtCO<sub>2</sub>eq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COFEMA(Consejo Federal de Medio Ambiente: 연방 환경위원회)를 설립

〈주요 중남미 국가별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 연도	국가	감축 기준	목표
2030	파라과이	BAU	20% 감축
	멕시코	BAU	30% 감축
	브라질	2005	50% 감축
	에콰도르	2008	50% 감축
	콜롬비아	BAU	30% 감축
	아르헨티나	2007	26% 감축
2050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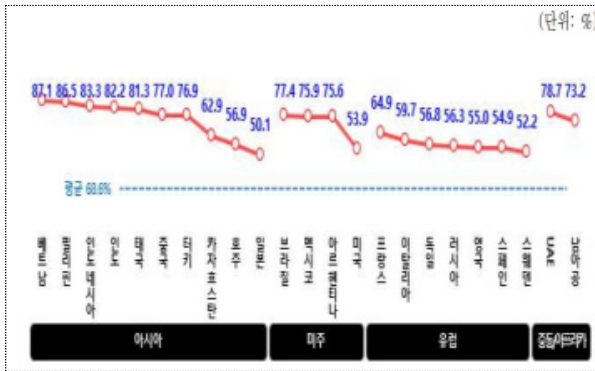
자료: IDB(2021), ECLAC(2022) 종합

## 라. K-Wave의 주류화 및 펜덤 형성에 따른 가치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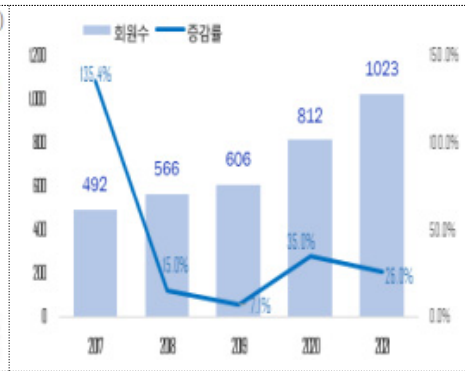
### ▣ 중남미내 한류는 일부 세대가 누리는 소수의 문화가 아닌 콘텐츠, 오락, 패션, 외식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

- 중남미내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더 익숙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류 동호회 회원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에 대한 관심도〉



### 〈중남미 한류 동호회 회원수〉



- 이러한 한류 열풍으로 문화콘텐츠 소비가 한국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 '22년 기준 한국의 對중남미 소비재 수출액은 2,644백만달러로써 전년대비 한국의 총 소비재 수출 증가율(3.6%)를 상회하는 10.7%로 對중남미 수출비중의 약 10%를 차지함

### 〈한국의 對중남미 소비재 수출 현황('22), 단위: 백만달러〉

구분	한국 총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對 중남미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對 중남미 수출비중
소비재 전체	80,957 (3.6%)	2,644 (10.7%)	9.9%
생활용품	7,900 (0%)	372 (14.3%)	1.4%
화장품	6,687 (-12.7%)	39 (7.3%)	0.14%
식품	8,823 (-1.1%)	182.5 (21.2%)	0.6%
패션	3,615 (-2.5%)	487 (-8.0%)	1.8%

- 멕시코의 경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02~'22) 10배 증가, 멕시코 내 한식당이 보편화\*되고 있음

\* 한식당 및 한인마트 다수: 구글지도 기준 멕시코시티 내 한인마트 20여개, 한식당 50여개

\* 한식당 방문객 중 한국인과 현지인 비중이 2:8로 고객 대부분이 멕시코인 (주요 한식당 인터뷰. '23.07)

- 페루의 경우, '23년 페루 기초화장품 사용률이 2013년 8% 대비 30%p 성장한 38% 기록했는데 현지 주요 일간지들은 스킨케어 시장 성장의 원인으로 K-뷰티 붐을 지목함

Chapter



# 비즈니스 환경분석



## 1

##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핑크타이드 기조 유지속 일부 국가들의 대선, 탄핵, 개혁정책 등으로 인한 혼란 예상
- ※ (경제) 중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하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 효과 확대
- ※ (산업) 니어쇼어링 수혜 산업 및 의료, 바이오산업 호진 예상
- ※ (정책)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강화

### 가. 정치 환경

■ **중남미 경제 양대 축인 멕시코와 브라질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로 역내 핑크타이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선, 탄핵, 급진적 개혁 정책 등으로 혼란 전망**

- (멕시코) AMLO(현 멕시코 대통령 Andres Manuel Lopez Obrador의 약칭) 정부는 '18년 12월 집권 이래, 60% 내외의 안정적 지지율 유지 중
  - '23년 8월 여론조사 결과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치안 및 부정부패는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우세
- (브라질) 룰라 정부가 취임 9개월만인 '23년 10월 단행한 개각에서 중도 성향 정당 인사들에게 각료직을 배분함으로써 범여권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룰라 대통령은 취임 9개월만에 단행한 개각을 통해 중도 성향 정당들에게 각료직을 배분함으로써 의회지지 기반을 확대
- (아르헨티나) '23년 11월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최종 당선
  - 밀레이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55.7%의 득표로 여당 후보를 앞서며 당선됐으나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폐소화 폐지를 통한 달러화 법정통화 채택, 장기매매 합법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등 친시장적이면서도 극단적인 공약으로 인해 당선 이후부터 ('23.11.20) 아르헨티나의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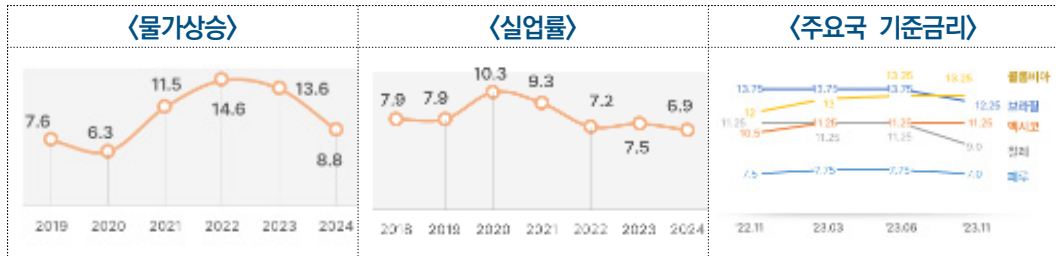


- (페루) '23년 초 원주민 출신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발생
  -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EIU)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치불안이 지속될 것이며,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
-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스는 '22년 8월 취임후 건강, 연금, 노동 분야의 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임 1년만에 부정적인 여론은 61%로 집계됨

## 나. 경제 환경

###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23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 보합 전망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1년도	'22년도	'23년도(f)	'24년도(f)
민간소비	7.6%	5.6%	1.3%	2.5%
공공소비	4.0%	1.5%	0.9%	0.6%
고정투자	17.3%	4.6%	0.0%	2.4%
수출	8.3%	7.1%	3.1%	4.4%
수입	18.3%	7.7%	1.3%	4.5%

출처: IMF(2023.10), WB(2023.06), ILO, Statista, 각국 중앙은행 자료 종합

- (소비) 역내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조치로 소비 위축 경향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現경기 상황에 대한 내성, 중남미 여행수요 증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4년 소비는 2.5% 증가 예상
- (투자) 경기악화에 따른 기기 교체 시기 장기화는 다소 해소되어 고정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보전 프로젝트 발주 확대에 따른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 멕시코의 경우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니어쇼어링반사 이익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전망되며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로 브라질, 칠레를 필두로 광물 및 식량 자원의 생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교역) 니어쇼어링 효과에 따른 완성차, 자동차부품의 수출과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로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주요국들의 내수 회복세에 따른 공산품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제유를 중심으로 수입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용) 성장률 둔화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으로 고용 지표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나 팬데믹시기에 위축되었던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 전망

## 다. 산업 환경

### ■ 자동차부품 산업

- (시장현황)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22년도 동품목 수출액은 전년대비 22.5% 증가한 약 18.2억달러를 달성했으며, 對브라질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21.1% 증가한 7.3억달러를 기록하며 중남미 양대 시장에서 견조한 호조세 유지
- (기회요인)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수혜효과 및 멕시코가 전세계 3위 수입국인 점, 멕시코와 브라질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생산량 고려 시 이러한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제약산업

- (시장현황) 중남미 의약품 시장 상위 3개국인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제약시장 규모는 각 22,668백만 달러, 10,571백만 달러, 4,273백만 달러로 매년 약 4%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특히,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의 수입액의 성장세가 뚜렷함
- (기회요인) 중남미는 최근, 핑크타이드 기조에 따른 공공의료 부문 확대에 의해 의약품 공공입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만성질환 분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수출 성공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 의료기기 산업

- (시장현황) 팬데믹 이후 진단키트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초음파 진단장비, 미용의료기기 및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당 및 혈압 측정기 분야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 호조세를 유지
- (기회요인)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수입품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칠레의 경우 특정 5개의 품목을 제외한 의료기기 품목에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망시장으로 검토됨

## ■ 화장품

- (시장현황) 중남미 화장품 시장은 연간 평균 597억불 규모로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13.4%를 차지하며 국별로는 브라질이 세계4위(약 293억불), 멕시코가 12위(84억불) 규모의 화장품 시장을 보유함(Euromonitor, 2022)
- (기회요인) 한류 확산으로 멕시코, 브라질 내 K-Beaut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뷰티 제품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유통사 및 샵들이 다수 있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편

## 라. 정책·규제 환경

### ■ USMCA 역내비중 강화\*에 따라 철강 등 원부자재를 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증가하고 있음

- '23.8.15 부 멕시코의 임시관세인상 조치에 따라 철강 품목의 관세가 기존 10%에서 25% 인상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과 가격경쟁력 애로가 더욱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231가0 전망됨

\* 자동차 및 핵심부품 생산·제조 시 투입되는 알루미늄 및 철강의 70%가 북미산 충족 필요

## ▣ 탄소중립을 위한 중남미 국가별 정책 도입이 확대 중

연번	국가	주요 정책
1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는 파리협약 및 25차, 26차 COP - 탄소 감축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5 파리협정)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22% 감축</li> <li>② (COP 26)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 목표 설정</li> </ul> </li> <li>• 현 정부(AMLO, 2018~2024)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10대 행동계획'을 발표, 2024년까지 전체 소비 에너지의 35%를 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생산 목표</li> <li>• 대통령령·임시법안을 제출하여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을 육성</li> </ul>
2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기준 온실가스량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코자 함</li> <li>• 인프라 개발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 (REIDI) : 교통, 항만, 에너지, 기초위생, 관개 등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사회기여세</li> <li>• 'Zero Methane Program', '탄소거래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중</li> </ul>
3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행된 감축 조치 성과에 따라 '30년까지 30% 감축 목표 수립</li> </ul>
4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필두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세부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그린수소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Hidrogeno Verde, '20)</li> <li>② e-모빌리티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de Electromovilidad, '21)</li> <li>③ 2022~2026 국가 에너지 효율 계획(Plan Nacional de Eficiencia Energetica, '21)</li> <li>④ 국가 냉난방 전략(Estrategia Nacional de Calor y Frio, '21)</li> </ul> </li> <li>• 2040년까지 28개의 화력발전소를 폐쇄</li> </ul>
5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까지 15%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힘</li> <li>• 페루 정부는 2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구매 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RER 발전 계약 수주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4차례 실시</li> </ul>
6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협회(CADER)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30년까지 수소 생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0년부터는 수소 수출을 시작할 계획임</li> </ul>
7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용량(Power Capacity installed)의 70%를 태양광 및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 추진</li> <li>• 화력발전에 있어 천연가스(LNG)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li> </ul>
8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고체폐기물 재생 목표를 '25년까지 35%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세금 도입</li> </ul>
9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라과이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여 발전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전부 그린 에너지 발전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향임</li> <li>• 전력공사(ANDE)는 '40년까지 수력발전 550MW, 태양광 1,600MW, BESS 1,600MW의 인프라를 추가 구축할 계획</li> </ul>
10	도미니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개발전략 2030(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2030, END 2030)을 바탕으로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li> <li>• 2021년 1월, 법령 1-12를 통해 국가개발전략 2030(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2030, END 2030)을 발표. 명목 탄소 배출을 2010년 3.6 미터톤에서 2030년 2.8 미터톤까지 감축 추진</li> </ul>

## ■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

-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소모품 사용 금지 적용
  - (칠레) '21년 법률 제21368호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을 제정. '22년 2월부터 식당, 카페 등 모든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수저, 젓가락, 그리고 스티로폼 포장재로 구성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함
  - (콜롬비아) '22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인 제2020-275호로 14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
  - (에콰도르)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강화,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 적용, 조세 단순화 및 진보법(Ley Organica de Simplificacion y Progresividad Tributaria)에 의거, 환경세 부과
- 중고차 수입 규제
  - (페루)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 중고 자동차부품 수입 규제 적용
  - (파라과이) 연한\* 경과 중고차 및 사고 차량, 우측 핸들 차량, 중고 가전제품, 중고의류
  - \* (중고차 수입 금지 연한) 승용차 : 5년 경과, 중고트럭 등 중장비 : 15년 경과

## ■ ESG

- ESG라는 용어가 비즈니스에서 통용되고는 있으나 현재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제화나 보편화는 미진한 수준이며 민간 기업의 경우는 일부 기업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
  - (멕시코) 멕시코 증권거래소는 '기업 지배에 대한 모범적 이행과 원리코드'를 채택하여 상장기업들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독려
  - 멕시코 연금협회는 'ESG 텍소노미' 자체 개발을 통해 그린 위상을 방지하고 투자 시 ESG 요소를 고려 할 예정
  - ESG채권은 '22년 2,670억 페소(약 148억 달러), '23년 1분기 400억 페소(약 22억 달러) 발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졌음
  - (브라질) 브라질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ESG를 평가함. 주요 ESG 평가 기준은 MSCI ESG 점수, Sustainalytics ESG 위험도 평가, ISE B3 등이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아직은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평가를 받지 않으나 대기업들이 협력 조건으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ESG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칠레) 광업,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이 주로 진출한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절감, 지역사회 공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여러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업,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이 주로 진출한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절감, 지역사회 공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여러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 광물 채굴 또는 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물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하거나 지역 거주민 대상 교육 또는 기부 활동 등을 진행 중임
-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대표 ESG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 정책, 녹색산업 분류체계 (Green taxonomy), 연금 의무가입 정책,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이끄는 기후 변화 토론 및 콜롬비아 은행 및 금융기관 협회에서 채택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 등이 존재
- 한편, 콜롬비아 내 많은 기업들이 ESG를 지향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의 연례보고서에 콜롬비아 기업 17개사가 멤버로 등록되어있음
- 콜롬비아 대표 금융기업이자 ESG 선도업체인 Bancolombia사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금 최대 4천억 페소 (약 8.9억 달러) 지원 계획이며, 그 외에도 지배구조(G)의 모델로 회사에 운영체계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감독위원회 신설 예정
- '23년 5월 콜롬비아 최대 석탄 생산업체인 Drummond사는 '50년까지 광산 및 에너지 생산 운영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구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
- (페루) 페루 환경부는 '국가 환경 정책 2030'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페루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적 ESG 전략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추세임.
- 민간 기업조사기관 MERCO는 매년 ESG 이행도를 조사, 발표함
- 페루 N사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천연성분 화장품을 생산 중이며 아마존 보호를 위해 아마존 커뮤니티와 협력 중으로 환경(E) 분야 1위\* 차지

## 2

## 시장 분석

- ※ 시장특성 : 원자재의 보고이자 GVC 재편의 최대 수혜지이며 그린에너지 산업의 선도지역
- ※ 수출입 :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 및 역내 국가간 교역 비중 지속 증가
- ※ 투자 : 미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자동차부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유입 증가 지속
- ※ 프로젝트 :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정부 주도 각종 인프라 발주 확대

###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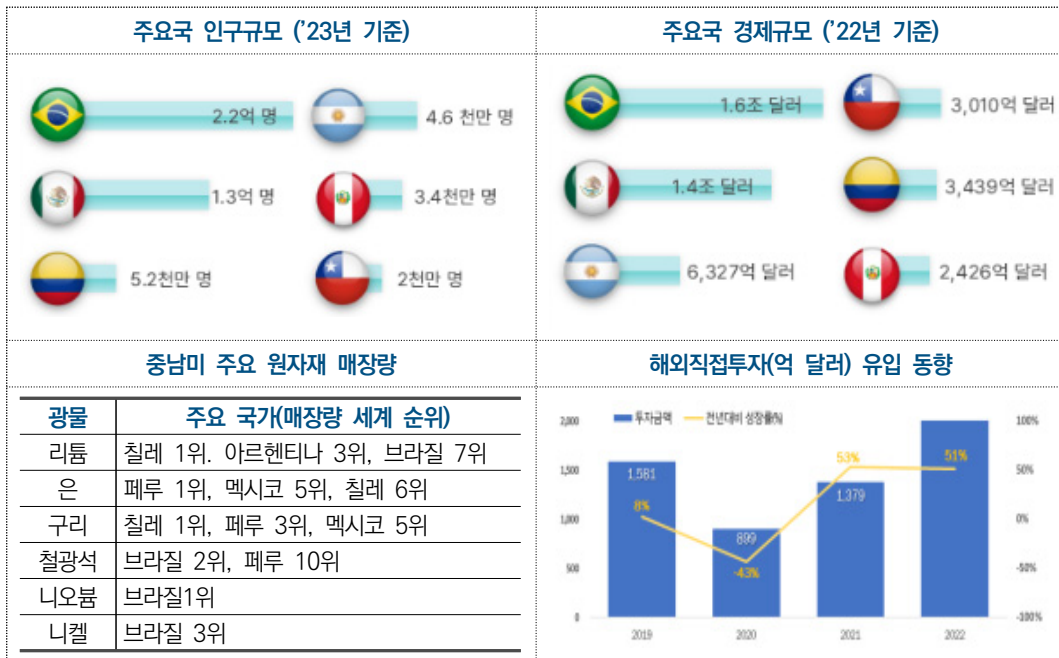
#### ▣ 거대시장, 단일 언어권, 두터운 중산층, 젊은 인구의 중남미 대륙

- 2023년 기준 중남미 인구는 약 6.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3%, 중남미 대륙은 총 면적 약 2,055만㎢로 전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
  - 33개 독립국(멕시코,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및 카리브 13개국)으로 이루어짐
  - 과반수의 국가(18개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이외 영어(카리브 12개국), 포르투갈어(브라질), 불어(아이티), 네덜란드어(수리남)를 사용
- 2022년 기준, GDP는 6.25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3억명), 중위연령은 31세임로 세계 소비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속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대륙

- 美·中 갈등에 따른 GVC 재편의 최대 수혜지이자 세계적인 원자재 보고로 글로벌 생산공장으로서의 위상 제고

## 〈중남미 주요현황〉



## ▣ 한국과 FTA 다수 체결 지역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요충지

- 한국은 중남미 10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전체 FTA 체결국(총 59개국)의 19%를 차지하여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 허브\*로 활용 가능

\*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에콰도르

\* USMCA('19), IRA('22)발효를 비롯한 북미지역 중심의 국제 환경 변화로 미국의 원산지 혜택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관련 기업은 BMW, Tesla, GM, 기아 등 약 100여개사에 달하며 FDI 유입액은 7년만의 최대치인 353억 달러를 기록함 ('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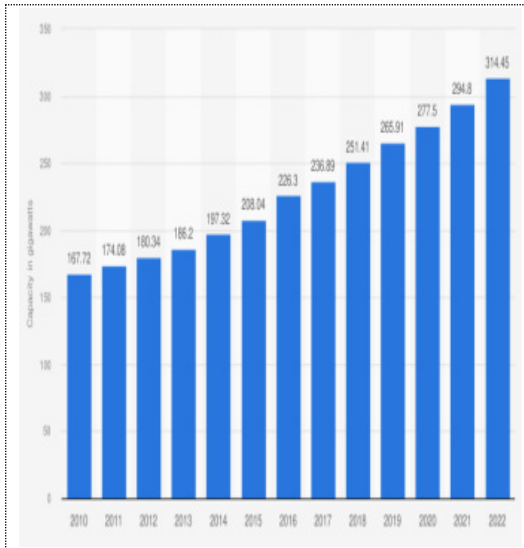
##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역

- 중남미는 세계 산림의 23%, 강우량의 29%, 생물종의 60-70%, 수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57.5%로 권역 기준 세계 1위 (세계 평균 28.4%)
- \* 출처 :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남미의 기회 요인(202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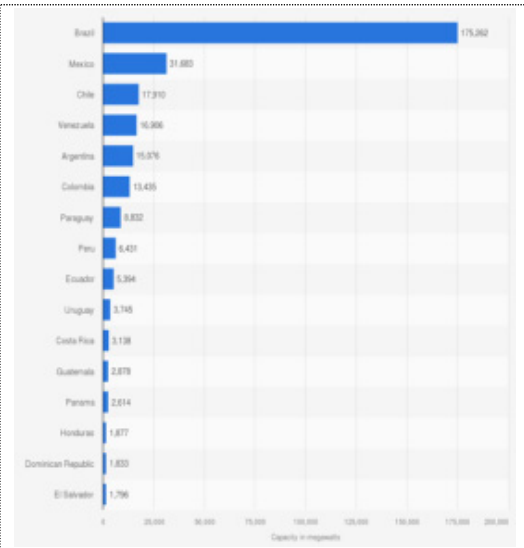


- 또한,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2022년 칠레 전력 생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 대비 55.58%로, 발전량과 설비용량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재생에너지 발전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중남미 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우리 기업의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현황 :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등 공공기업과 민간기업(한화큐셀, S-에너지, 대림에너지 등) 간 합작으로 2017년부터 칠레 내 약 2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진행 포함)하여 운영 중이며, 투자 규모는 총 2,422억 원, 발전량은 약 185.2MW 규모 상당

## 나.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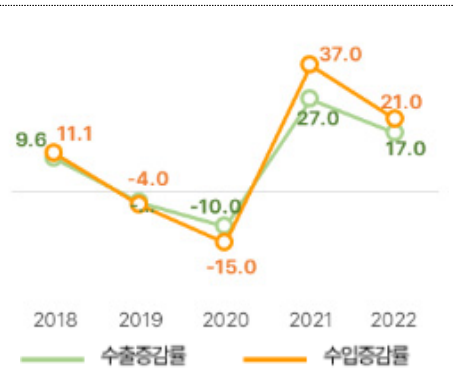
▣ '22년, 수출 1조 4,142억 달러, 수입 1조 4,974억 달러로 역대 최고 교역규모 달성

- '22년 중남미는 미국발 수요 증가, 역대 교역량 확대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반면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수입은 약 21%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832억 달러)를 기록함

### 〈중남미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	금액	9,410	11,961	14,142
	(증감률)	△10.2%	27.1%	18.2%
	(세계 비중)	5.3%	5.3%	5.6%
수입	금액	8,977	12,355	14,974
	(증감률)	△15%	38%	21.2%
	(세계 비중)	5.1%	5.6%	6.1%
교역규모		18,387	24,315	29,116
무역수지		433	- 394	832

### 〈중남미 교역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GTA

### ■ 주요 교역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이 중남미 수출입의 57%를 차지, 한국은 2% 차지

- 중남미 교역 비중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며, 그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MERCOSUR와 같은 역내 경제동맹\*을 통한 교역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남미 주요 경제동맹〉

경제공동체	성격	회원국
남미공동시장 (Mercosur), '95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2.4조 달러 (중남미의 38%)</li> <li>인구 2.1억 (중남미의 36%)</li> <li>회원국간 관세 철폐</li> </ul>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11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2.7조 달러 (중남미의 43%)</li> <li>인구 2.8억 (중남미의 48%)</li> <li>역내 관세의 원칙적 철폐</li> </ul>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중미공동시장(CACM), '61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상품의 95%에 대해 평균 6% 관세 적용</li> <li>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와 FTA 체결</li> </ul>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 〈중남미 주요 수출입 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입 규모				순위	수출 규모			
	국가명	2021	2022	비중		국가명	2021	2022	비중
1	미국	3,782	5,428	38.5%	1	미국	4,986	6,033	42.8%
2	중국	2,576	2,619	18.6%	2	중국	1,701	1,998	14.2%
3	브라질	497	585	4.1%	3	캐나다	254	470	3.3%
4	독일	427	432	3.1%	4	네덜란드	230	354	2.5%

순위	수입 규모				순위	수출 규모			
	국가명	2021	2022	비중		국가명	2021	2022	비중
5	아르헨티나	296	338	2.4%	5	브라질	306	350	2.5%
6	일본	313	293	2.1%	6	일본	230	306	2.2%
7	한국	318	270	1.9%	7	한국	206	288	2.0%
8	이탈리아	191	210	1.5%	8	스페인	154	269	1.9%
9	스페인	179	199	1.4%	9	독일	181	247	1.8%
10	캐나다	204	194	1.4%	10	아르헨티나	189	239	1.7%
소계		8,783	10,568	75.0%	소계		8,437	10,554	74.9%
전 세계 수입 규모		12,089	14,100	100%	전 세계 수출 규모		12,670	14,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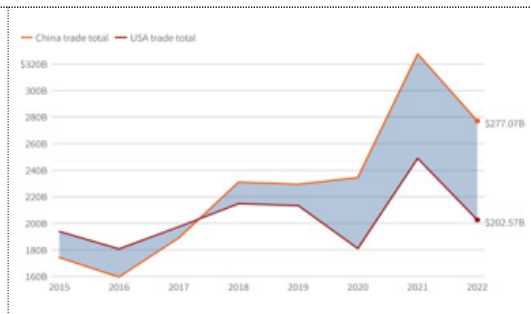
출처: ITC Trade Map

- 현재까지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나,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과 중국 교역규모는 트럼프 정부 이후부터 미국을 넘어섰으며 그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중남미내 미국과 중국 교역비중 이원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중남미내 미국, 중국 교역비중 현황〉



#### 〈남미내 미국, 중국 교역비중 변화 추이〉



출처: Statista, Reuters

-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원자재(대두, 금속, 광물, 원유 등)의 수출비중이 50%이상으로 원자재 수요가 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졌으며, 멕시코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 전기제품과 같은 니어쇼어링의 수혜를 입은 제조업 기반 완성품 인 바,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짐.
- 또한, 미-중 갈등이 양국간 관세 갈등으로 확장되며, 중국이 수입 대체지를 중남미에서 찾는 패턴이 형성되면서 중남미와 중국간 교역 증가함

### 〈중남미 주요 국가의 수출 현황〉

국가	수출규모 ('22년 기준)	주요 수출국가	주요 수출품목
멕시코	578.28	미국(78.2%), 캐나다(2.7%), 중국(1.9%), 독일(1.4%)	제조품, 소비재, 원유
브라질	334.46	중국(26.8%), 미국(11.3%), 아르헨티나(4.5%), 네덜란드(3.6%)	육류, 대두, 종자유, 곡물
칠레	102.63	중국(38%), 미국(15%), 일본(7.5%), 한국(5.9%)	광물, 과일류, 곡물, 수산물
페루	58.17	중국(30%), 미국(14%), 일본(4.8%), 캐나다(4.8%)	광물, 귀금속, 곡물
콜롬비아	38.95	미국(31%), 파나마(14.5%), 인도(14.6%), 중국(4.4%)	원유, 광물, 화훼류

출처: ITC Trade map

▣ 중남미의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차량용부품, 전화기, 승용차 등 제조품 위주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대두, 자동차, 컴퓨터, 구리 등 원자재 등이 해당됨

### 〈중남미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 위	주요 수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			
	품목	2021	2022	비중	품목	2021	2022	비중
1	정제유	798	1,359	9.1%	원유	786	1120	8.0%
2	차량용부품	395	448	3.0%	대두(콩)	423	532	3.8%
3	석유가스	313	373	2.5%	승용차	445	530	3.8%
4	전화기	336	368	2.5%	구리광	521	465	3.3%
5	승용차	261	338	2.3%	컴퓨터	341	434	3.1%
6	전자직접회로	277	329	2.2%	차량용부품	331	414	3.0%
7	컴퓨터	220	222	1.5%	화물자동차	360	392	2.8%
8	원유	142	220	1.5%	철광	493	322	2.3%
9	의약품	192	210	1.4%	금	300	290	2.1%
10	화물자동차	135	169	1.1%	정제유	200	29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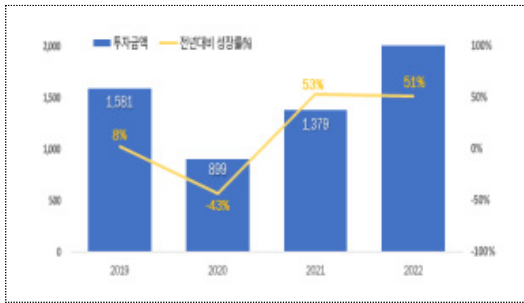
출처: ICT Trade Map / HS 4단위 기준

## 다. 투자진출

### ▣ 경기 악화속 IRA 시행후 니어쇼어링 확산으로 FDI 유입 증가세

- '22년 기준 중남미의 FDI(Inflow)는 2,085억달러 규모로 팬데믹 이전 수준(1,581억불)을 상회했으며, 이는 최근 IRA 시행에 따른 니어쇼어링 수혜 업종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광물(칠레 리튬) 분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된 결과

### 〈對중남미 FDI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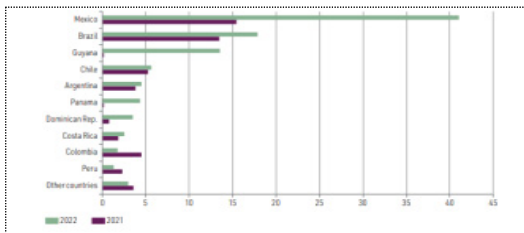
### 〈중남미 주요국 FDI 유치 현황〉

구분	2021	2022	'23.1-6월	전년대비 증감율
브라질	507	860	316	-26%
멕시코	315	353	290	19.8%
칠레	131	198	111	-7%
아르헨티나	68	151	87	2.6%
콜롬비아	96	127	95.6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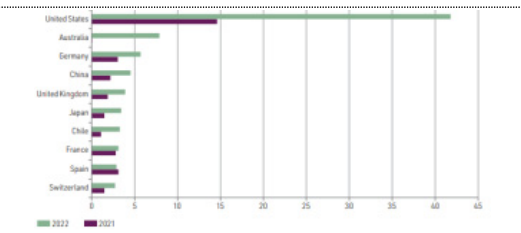
출처: UNCTAD 2022년까지), 브라질 중앙은행, 칠레투자청, 콜롬비아 중앙은행, CEIC통계 종합  
중남미 FDI 유입액은 브라질(33%), 멕시코(25%), 칠레(11%)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Cepal, 2023)

- 對중남미 주요 투자국은 미국(36%)과 서유럽(34%)이 전체 FDI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국책은행을 중심으로한 ODA, 현지 인수합병,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 비중이 타 부문 대비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됨

### 〈중남미 국별 FDI 프로젝트 발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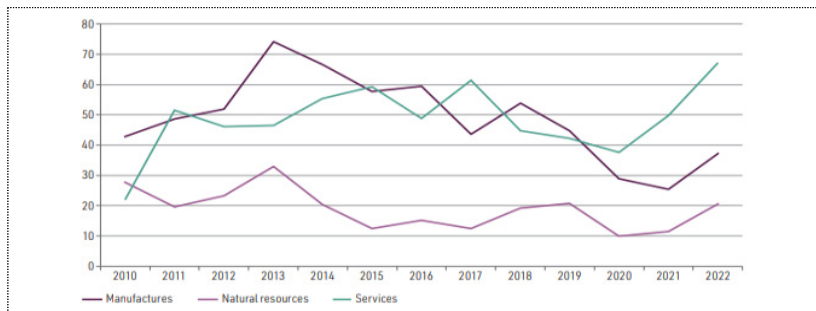
### 〈對중남미 FDI 주요 투자국〉



출처 : 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23)

- 한편, 對中남미 FDI의 주요 부문은 관광, 통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분야지만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 분야, 에너지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5G 통신망 재정비 관련 프로젝트 분야에서의 투자가 크게 증가함

### 〈최근 12년간 산업별 對중남미 FDI(Inflow)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출처: 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23)

- 2023년에도 IRA 법안 통과에 따라 멕시코 중심의 니어쇼어링 수혜 확대, 국가간 M&A 물량 증가로 인하여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갈등 구도속 각국의 공급망 확보 노력으로 對중남미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기차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인해 리튬 수요가 더욱 늘어나며 리튬 가공 기술력이 부족한 중남미 리튬 보유국(칠레, 아르헨티나) 중심으로 FDI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라. 프로젝트

- '23년 중남미 건설시장은 팬데믹 완화와 인프라 투자 및 시장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전년대비 9.2% 성장한 6,567억달러(세계건설시장의 4.7%) 규모로 추정됨 (해외건설협회, '23.8)

〈세계 건설시장 규모 및 중남미 시장 비중〉

지역	2021	2022	2023
중남미 시장	5,153	6,069	6,567
전체 시장	129,442	134,696	141,019
중남미 시장 비중	4.0	4.5	4.7

출처: 해외건설협회

- 미주개발은행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불의 투자 필요 (수처리, 에너지, 운송 및 통신 등) \* PPP Americas 2023, Partnership with purpose (IDB, '23.6)
  -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수치로, 인프라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중남미 GDP의 3% 규모 투자 필요
  - 한편, 최근 민간의 자금조달 참여율은 30% 수준으로, 참여 정도가 지속된다고 볼 때 2030년까지 약 6천 6백억달러의 민간투자 필요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 17개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등)
- '23년 9월까지 한국의 對중남미 프로젝트 수주 규모는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55% 증가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 EDCF 협조용자 도로 공사(3.7억불), 파나마 메트로 공사 증액(3.3억불)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對중남미 프로젝트 수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9월
對중남미 수주액(증감률)	1,378(-80%)	604(-56%)	1,338(+555.8%)
對중남미 수주 비중	4.5	1.9	5.7

비중: 전 세계 대비 비중 /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 한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리튬 삼각지대’(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를 필두로 한 중남미 리튬 시장규모가 '23~'29년 연평균 22.8%성장 (22년 2.1억 달러 → 29년 7.7억 달러) 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산후안주 리튬생산 플랜트(11억 달러), 칠레 카르멘 탄산리튬 플랜트 (9.8억 달러) 등 관련 프로젝트 추진 전망
- 중남미는 세수감소와 부채증가 등으로 사업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PPP방식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사업 추진 예상
  - 23년 6월 기준, 중남미 PPP 사업은 전년(294건) 동기대비 61% 증가한 474건을 기록했으며 인프라(도로, 교량)는 160건(725억달러)으로 34% 비중을 차지함

## 가. 교역

- 중남미는 아시아, 북미, 유럽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 시장으로 최근 20년간 교역이 4.7배 증가
  - [2002년] 126억불 (수출: 89억불, 수입: 37억불) → [2022년] 593억불 (수출: 266억불, 수입: 327억불)
- 한편, '23년 9월 누적 對중남미 수출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18,379 백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당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하여 수출 플러스 전환됨
- '23년 1~9월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의 감소 요인으로는 △수출가격의 하락과 전년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主수출품목 수요부진,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수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對중남미 수출 증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지역	'22년 전체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남미	26,590	1,710	1,878	2,362	1,808	1,995	2,536	1,981	1,979	2,405	1,958
	(3.0)	(△24.9)	(△17.7)	(△6.4)	(△20.8)	(△26.2)	(9.1)	(△7.0)	(△11.1)	(18.2)	(8.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세에 따른 생산, 소비 중심 회복이 관찰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하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는바 반도체 등 수출가격\*의 하락세가 완화된다면 중남미 수출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최대 對중남미 교역국은 멕시코이며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포함한 5개국이 전체 수출 비중의 약 80%를 차지함



〈對중남미 주요 수출 국가〉

순위	국가	2022년	'23년1-10월	비중
1	멕시코	12,654	10,198	47.6%
2	브라질	4,976	3,623	18.7%
3	칠레	1,510	1,031	5.7%
4	콜롬비아	940	1,001	3.5%
5	페루	778	57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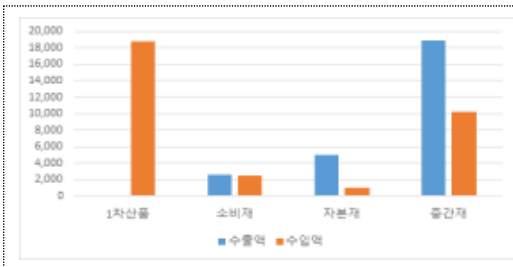
〈對중남미 주요 수출 국가〉

순위	품목	2022년	'23년1-10월	증감
1	자동차부품	2,932	2,338	-4.6%
2	자동차	2,375	2,278	15.8%
3	철강판	2,728	2,265	-4.0%
4	합성수지	1,760	1,181	-24.9%
5	선박	1,703	1,033	-21.1%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對 중남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선박 품목으로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44%를 차지
- 한편, 전통적으로 對중남미 수출의 90%가 현지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간재 71%와 자본재가 19%를 차지해왔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및 수출 단가 하락으로 두 항목의 수출 감소세가 큼.

〈'22년 對중남미 가공단계별 수출입현황〉



〈'23년 1-10월 가공단계별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불〉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1차산품	40	-4.7%	12,891	-17.8%
소비재	2,505	14.7%	2,125	3.4%
자본재	3,782	-6.9%	816	-5.2%
중간재	14,270	-12.4%	9,678	12.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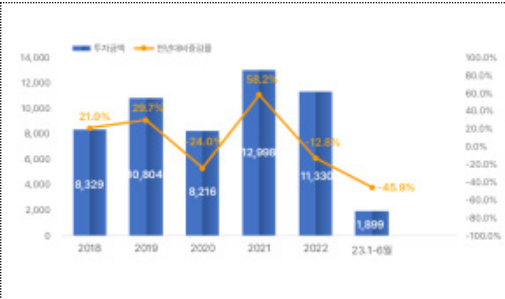
- 수입의 경우 '23년 1-9월 누적 기준 한국 최대 對 중남미 수입국은 칠레이며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5개국이 전체 수입 비중의 약 87%를 차지함
- 對중남미 주요 수입품은 원유, 정밀화학원료, 식물성물질, 동광, 동제품과 같은 원자재 품목으로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약 50%를 차지함

# 나. 투자

## ▣ '22년 기준 한국의 對중남미 FDI 전년 대비 12.8% 감소한 113억 달러

- 중남미는 우리나라 FDI의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對중남미 FDI 주요 업종은 최근 5개년 기준 금융 및 보험업62%, 제조업11%, 광업6%, 전기가스공업6%, 정보통신업 5%, 부동산업2% 순으로 나타남.

〈對중남미 FDI 추이〉



〈중남미 주요국 FDI 추이, 단위: 백만불〉

	2022	'23.1월-6월	증감률
케이만군도	9,382	1,375	-50.1%
멕시코	689	167	-60.4%
페루	595	154	624.1%
아르헨티나	277	110	순증
브라질	104	55	109.5%
투자액총계	11,330	1,899	-45.9%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23)

- '23년도 상반기, 한국의 對중남미 지역 투자액(1,899백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45.9%)
  - \* 케이만군도는 조세피난처로의 역할로 인하여 역외금융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8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 시 멕시코가 한국의 對 중남미 최대 투자 대상국임.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튬 수요 증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對중남미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호에 연간 2만5000톤 수산화리튬 생산 규모 공장 착공중  
 \* LG에너지솔루션, 칠레 리튬업체 SQM과 수산화-탄산리튬 5만 5,000톤 공급계약 체결

## 다. 한-중남미 FTA

### ■ 중남미는 한국과 FTA 다수 체결 지역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요충지라 볼 수 있음

- '23년 10월 기준, 한국은 중남미 10개국과 FTA가 체결(협상타결 포함)되어 한국 전체 FTA 체결국(59개국)의 19%를 차지함

〈한국-중남미 국가 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분	상대국	개시	서명	발효	비고
발효	칠레	'99.12	'03.02	'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콜롬비아	'09.12	'13.03	'16.07	중미 시장의 교두보, 아시아 유일 FTA 체결국
	페루	'09.03	'11.03	'11.08	중남미 신흥시장, 자원부국
	중미 5개국	'15.06	'18.2	'19.10 ~'21.3.1 * 국가별 상이	중남미 신시장 창출 *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협상 타결	에콰도르 (SECA)	'15.08	'23.10	-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
	과테말라	'21.10	'23.9	-	* 북미, 남미간 진출 허브
협상중	MERCOSUR	'18.05	-	-	* MERCOSUR 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21.8월 제7차 협상 진행
협의 개시	PA	'22.01	-	-	* PA 4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 가입 협상 개시 선언
	멕시코	'06.02	-	-	* '22.3월 재개 선언

## 라. 협력 유망분야

### ■ (ODA)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과 경제혁신파트너 프로그램(EIPP)을 통한 한국의 정책 경험 및 노하우 전수

- 중남미 ODA 현황 : 한국의 對 중남미 지원규모는 약 2.2억 달러 ('22년)
  - 글로벌 ODA의 6% 수준인 121억 달러이 중남미로 투입 ('21년)
    - \* 지원액 중 비중(OECD, '21): 미국 21%, 프랑스 17%, 독일 14%, 일본 5.5%, 韓 2.3%
    - \* 지원분야 비중(OECD, '21): 사회-경제 인프라 39%, 보건 13%, 인도주의 지원 10%

- 중남미는 한국의 중점 협력국으로 보건, 지역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점지원 하고, 역내 현안(이민·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 추진

※ 중미 북부 3개국(엘·과·온) 대상 ODA 확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역내 신흥공여국 (멕시코, 코스타리카)과의 삼각협력 모색

\* '21-'24년간 2.2억달러(유상 1.2억달러, 무상 1억달러)로 확대

구분	한국의 對중남미 ODA 규모(억달러)	비중(한국 전체 ODA규모 대비)
유상	1.0	9.8%
무상	1.2	5.7%
총계	2.2	7.0%

- 한국은 KSP 사업(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역량강화 모델을 제시함

#### 〈對 중남미 KSP사업 요약〉

	최초 수행	2004~23년	2023년	최근 사업
KOTRA KSP	2014년	69건	10건	칠레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부문 역량강화 방안
중남미	2014년	28건	3건	쿠바 지속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

\* KSP 총괄기관(KOTRA, KDI, 수출입은행) 수행한 전체 사업

#### 〈2014~2023, KOTRA 對 중남미 KSP 사업 내역 (총 28건)〉

국가	연도	사업명
멕시코	2017/18	에너지 발전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KSP 연계 진출 전략 세미나
	2021/22	멕시코시티 대중교통망 개선 및 통합교통시스템 연계방안
볼리비아	2022/23	볼리비아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브라질	2018/19	브라질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
	2019/20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컨설팅
	2020/21	니테로이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에콰도르	2014/15	에콰도르의 산업·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7/18	국제표준화 및 기술표준제도 자문 연계 및 유휴장비 이전 CSR
	2019/20	에콰도르 수출 역량 강화와 對아시아 수출 증진 지원 위한 정책 연구 및 컨설팅
	2020/21	보건 방역 KSP-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2021/22	과야킬시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
	2021/22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및 후처리 기술 도입 방안
칠레	2016/17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부문 역량강화 방안
콜롬비아	2023/24	전기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국가	연도	사업명
쿠바	2015/16	쿠바 무역 및 투자 진흥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6/17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수립
	2018/19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2020/2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경험 교류
	2022/23	쿠바 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2023/24	쿠바 지속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
파라과이	2021/22	자동차 산업 육성방안
	2022/23	파라과이 의료 기기 관리 시스템 및 인증제도 자문
	2023/24	패키징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페루	2014/15	페루 산업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5/16	페루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2018/19	페루 물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 자문
	2019/20	파나맥스급,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 제조 관련 시설 구축과 현대화를 위한 분석, 전략수립

- 또한, 해외 대형인프라 등 수주 기회 선점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G2G 차원의 심화된 (매년 3~5건) 중장기(3~5년) 정책자문 프로그램으로 EIPP 프로그램(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23년 기준 중남미 EIPP 사업은 KOTRA에서 수행하고 있는 키토 에콰도르의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컨설팅”사업이 유일함

#### 〈2023/24년 에콰도르 EIPP 사업 (총 2건)〉

세부사업명	비고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솔루션 고도화 및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	'21/22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KSP 사업에서 도출된 계획 고도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F/S 고도화	에콰도르 과야킬시 신공항 이전 사업 관련 경제적·상업적 타당성 분석 업데이트

## ■ G2G/방산

### 가. [방산] 군·관·기업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총체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최근 10년 (2011-2020년)간 중남미 전체 무기 수입의 38%를 미국이 차지하고 그 외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후발주자인 한국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임.

- 그럼에도, 중남미 지역은 테러조직과의 전쟁, 인구 10만명당 살해비율 최고 수준으로 치안불안이 심한 지역이며 국경지역에서 국가간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여 이와 관련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방산물자 수입 이후에 사후 관리 및 부품 수급 문제에 애로를 겪는 중남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물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중남미 다수국이 무기 구입 시 투명성 제고 및 수출국 정부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요구를 위해 판매업체가 아닌 판매국 정부와 계약을 희망하는 추세임.

#### 방산, G2G 분야 2023년 추진 주요 사업

- ▶ 페루 육군 장갑차 30대 G2G 방산계약 수주 지원  
(추진상황) ('22.10) 페루 군수조달본부장 방한유치, 공장방문 지원(현대로템, 한화)
- ▶ 칠레 해군 KIA 군용차량 13대, 200만불 G2G 방산계약 수주 지원  
(추진상황) ('23.1.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3.3월) 계약체결

#### 나. [G2G] 우리 기술 선도 분야 인프라 프로젝트 집중 공략

-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중남미 각국의 건축재정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전반에 걸친 '정부 역할 강화'에 따라 SOC 프로젝트 확충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성공사례도 지속 창출

#### 방산, G2G 분야 2023년 추진 주요 사업

- ▶ (산토도밍고무역관) 한전, 도미니카공화국 스마트그리드 구축 1차산업 중 3개 LOT 수주 (총 U\$38백만)  
- 프로젝트 발굴(22.2월), GPP 발주처 방한 및 국내기업 방문지원(22.5월), 수시지원 (22.3월-7월), 계약 체결 지원(23.8.1)
- ▶ (리마무역관) 공항공사, 페루 친체로 공항 기술지원 G2G 프로젝트 수주 (총 U\$26백만)  
- 프로젝트 발굴(22.4월), 공관, 발주처, 국내기업 간 협의체 발족 및 지원(22.4월-23.7월), 최종 제안서 제출 (23.8월), 채택확정 통보(23.8.4)
- ▶ (과테말라무역관) 유일엔지니어링, 벨리즈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FS) 입찰 낙찰 (총 U\$85만)

## ■ (공급망) 중남미 광업·농업 분야에 투자 유치 및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의 자원·광물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요 존재

- ① (칠레)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활용하려 리튬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 중
  - 칠레 생산진흥청은 2022년 8월 칠레산 리튬을 우대가격(Precio Preferente)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등) 생산 기업을 칠레로 유치하는 입찰 공고를 시행함
  - 칠레 광업부(Minminería)는 리튬 직접 추출, 리튬 부가가치 창출, R&D 등을 수행하는 ‘리튬 공기업’ 설립을 추진 중임
    - \*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칠레로부터 탄산리튬 2.5억 달러, 수산화리튬 0.6억 달러를 수입하여 리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
- ② (아르헨티나) 현지 광물 생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모색
  -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가 필요하며, 한국 협력업체 등을 통해 일부 조달 추진 전망
  - 특히, 포스코의 경우 1차 생산공장 완공 후 2차 설비시설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③ (브라질) 자원 개발 및 농업 분야 생산성 확대를 위한 협력 분야 유망
  - (광물) 희토류, 미탐사 리튬, 니켈, 우라늄 등 매장량 세계 2위 수준이나 원료 추출·제련기술이 부족, 생산량 미미
  - (농업) 브라질 전체 토지 중 농경지는 7.6%에 불과, 개간 등 확장 가능
    - \* 브라질은 비료 수입 비중이 85%로 비료 개발·공장 건설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희망
  - 현지 기업·자산 지분 인수, 공급망 관련 인프라 투자, 브라질 기업과 브라질·제3국 공동 진출 등의 방식 존재
- ④ (콜롬비아) 농업 개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투자 및 개발 수요 증가
  - (배경) 내전으로 토지를 상실한 기존 소유자에게 정당한 토지 반환 절차 계획 수립 중이며, 정부는 농림부를 통해 농업 식품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할 토지 구매와 취득 절차 시작
  - (수요) 농업 발전을 위한 현대화 및 신기술, 새로운 경작 방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 및 가성비 좋은 농기계 유망
  - 정부 주도 농업 발전 실행으로 콜롬비아 농업 부문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칠레 등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유망국은 수력, 태양에너지 등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여건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중

- 지구온난화로 중남미 전역이 엘니뇨에 따른 풍수해 및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
  - 1991~2021년 중남미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약 0.2°C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2050년까지 농업 생산 감소 등으로 연간 총 1,000억 달러 피해가 예상
- 중남미 각국은 아심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잇달아 발표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중남미 주요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목표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달성
멕시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2% 감축
아르헨티나	2007년 대비 2030년 19% 감축
페루	2015년 대비 2030년 40% 감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영향으로 시장 수요 증가 기대
  - 전력시장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에너지원별 전력수요가 고루 증가, 칠레와 페루는 태양광,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풍력 중심으로 성장 예상
  - 또한, 이들 국가는 태양광, 풍력 등 풍부한 발전 여건을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그린수소 생태계를 적극 조성 중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기자재\* 수요 꾸준히 증가
  - \* 2015~2021년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5.0% 증가
  - \*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태양광 모듈, 풍력 발전세트, 변압기 등



Chapter



# 진출전략

---



- ※ (정치) 사회 인프라 및 자원개발 확대 등 큰 정부 지향 추세속 대선으로 인한 정국 혼란 전망
- ※ (경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 확대
- ※ (사회문화) 문화에 대한 선호도,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
- ※ (기술) ITC 기술을 통한 산업, 교육, 정부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 1 거시 환경 분석(PEST)

<p><b>P</b> 정치정책 (Polit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양대 축인 멕시코, 브라질 내 핑크타이드 기조 공고화속 일부 국가들의 대선, 탄핵, 급진적 개혁 정책 등으로 혼란 전망</li> <li>• 큰 정부의 보호주의, 자원주권주의, 세금인상, 보편복지 정책 강화</li> <li>• 좌파 정권들의 환경보호, 보편복지 정책 강화 속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교통·통신·보건 관련 인프라 개발 경기부양 정책 확대</li> </ul>
<p><b>E</b> 경제 (Econom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에 따른 급격한 긴축 정책 속 2.3% 성장 전망</li> <li>• 물가상승 대응 및 환율 방어를 위해 지속되었던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단행조치 완화 추세              ☞ '22년 11월→'23년 11월 : 브라질(13.75→12.25), 칠레(11.25→9.0), 페루(7.5→7.0)</li> <li>• 세계적인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도 멕시코, 브라질 등 니어쇼어링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일부 수혜국에서는 현지화의 평가 절상 현상이 두드러짐.</li> </ul>
<p><b>S</b> 사회문화 (Soc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화 가속화로 인한 실버산업 확대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웰빙문화 확산</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제품 선호 및 탄소중립 정책 강화</li> <li>• 팬데믹 시기부터 가속화된 온라인 구매 트렌드 사회 전반 정착</li> <li>• 가격 중심의 소비에서 가성비를 따지거나 한류와 같은 문화 체험에 기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li> </ul>
<p><b>T</b> 기술 (Technolog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에 힘입어 통신 및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li> <li>•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움직임 포착되고 있으며 5G 상용화 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될 전망</li> <li>• 초·중등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온라인 수업, 디지털 교과서 등)를 통한 자국 국민들의 교육 접근성 강화</li> <li>•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행정절차 자동화 기술 채택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구현 노력 지속</li> </ul>

2

##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중남미지역 SWOT 분석〉

#### 강 점(Strength)

- 역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기술력 인식 제고
- 한국과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 현지 제조 · 생산 후 對북미 수출 여건 개선
- 한-중남미 FTA 체결 확대로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
- 한류 확산으로 한국 소비재 제품 선호 확대

#### 약 점(Weakness)

- 언어, 거리 제한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기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애로
- 진출시 인프라 열악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 중국제품과의 가격 경쟁 심화
-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초기 비용 상승

#### 기 회(Opportunity)

-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정책 확대
- 신재생에너지, ICT 분야 정책 신규·확대 수립
- 의료/보건분야 공공조달 시장 확대
- K-Culture의 주류화, 팬덤강화로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 위 험(Threat)

- 아시아 국가들간 제품 경쟁 심화
-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자국주의, 보호주의, 반시장정책 확대
- 수입 규제 및 엄격한 인허가 제도 도입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어쇼어링 활용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창출</li> <li>• 민간·공공 투트랙을 활용한 조달시장 개척</li> </ul>	GVC 편입 지원 및 조달시장을 통한 K-Medical 시장 개척
ST 전략 (차별화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수혜 지역 및 상품 중심 마케팅 확대</li> <li>• K-Culture를 통한 제품 및 마케팅 차별화</li> </ul>	융복합 문화행사 연계 '가치소비' 시장 공략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정보보안, 빅데이터 등 우리기업 기술 우위분야 프로젝트 선제 발굴</li> <li>•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 발굴</li> </ul>	MDB 기금 활용 ICT,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확대
WT 전략 (방어/철수-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진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비관세장벽 극복</li> <li>• 현지 협·단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특이동향 적시 전파</li> </ul>	민·관 협력 채널 및 G2G활용 프로젝트 발굴/수주 지원

## 2024년 진출전략

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부장	○ 니어쇼어링 활용 GVC 편입 지원 및 각종 원자재의 대체 공급선 확보
소비재	○ K-Culture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ICT	○ 디지털 전환 정책 수요 맞춤형 ICT 시장 진출 지원
보건의료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K-메디컬 시장 확대
G2G, 방산, SOC, 프로젝트	○ G2G 및 방위산업을 통한 新수출 동력 확보
그린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 정책 적극 활용

거대시장,  
젊은시장,  
자원부국,  
중남미

미·중 갈등 반사이익 적극 활용을 통한  
현지 정책, 트렌드,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성과창출 체계 구축

### 3-1. 니어쇼어링 활용 GVC 편입 지원 및 각종 원자재의 대체 공급선 확보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중 분쟁, 러·우 사태 등으로 미국 주도의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USMCA, IRA의 수혜지역인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수요 증가
- 전기차 수요 증가세로 멕시코 내 생산도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22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22.5% 증가한 약 18.2억불을 달성했으며, 對브라질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21.1% 증가한 7.3억불을 기록하며 중남미 양대 시장에서 견조한 호조세를 유지
  -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수혜효과와 멕시코가 전세계 자동차 부품 3위 수입국인점, 멕시코와 브라질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생산량 고려시 이러한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멕시코를 북미시장 진출 허브로 적극 활용
  - USMCA, IRA, 니어쇼어링으로 주요 글로벌 OEM사는 현지 생산거점 설립 및 현지 소싱 진행 중
  - 전기차 수요 증가세로 멕시코 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 추세

#### 〈전기차 관련 멕시코 신규 투자 및 증설 예정기업〉

구분	기업명	지역	투자내용
글로벌 완성차	Tesla	누에보레온	50억 달러, 연 350만대 규모 신공장 건설, '24년부터 생산 계획
	BMW	산루이스포토시	8억 유로 전기차(뉴클래스) 및 배터리팩 생산공장 건설
	GM	코아우일라	1억 달러, 전기차(이쿼녹스, 블레이저) 생산 예정, '24년부터 전기차 전량 생산 계획
	Ford	에르모시요	'20년부터 전기차(머스탱 마하 E) 생산 중, '23년 1분기 연산대수 21만대, '26년까지 60만대로 확대 예정
	스텔란티스	코아우일라	추가 투자로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 검토, 램1500 픽업트럭 생산 예정
	Audi	푸에블라	전기차 생산시설 확장 여지 *로이터 보도 내용으로 아우디는 아직 공식 입장 확인 거절

구분	기업명	지역	투자내용
한국 기업	기아	누에보레온	'23년 1,780억원(전년비 750% 이상 증가)투자. 차량개발비, 전동화 전환 등 일부 라인 전기차 생산에 맞게 개조 계획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아우일라	'30년까지 1,600억원 투자, 연 150만대 규모의 구동모터코어(전기차 심장인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 생산체제 구축
	LG 마그나	코아우일라	구동모터 및 인버터 생산공장 설립, 올해 9월부터 모터 제품 양산 예정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두랑고	전기차 핵심 부품인 EV릴레이(배터리 동력전달장치), BDU(배터리 고압전류 연결, 차단 유닛)등 양산 공장 설립, '24년 완공 예정
	경신그룹	두랑고	4,500만 달러 투자,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와 더불어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전자카드 생산 예정

- 또한, 중남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산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수출 대국이자 리튬, 니켈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 보유국으로 세계 원자재 교역에서 전략성 중요성이 제고

#### 〈공급망 관련 중남미 주요 광물 보유 현황〉

광물	단위	매장량			생산량		
		전 세계	국가 매장량	세계 순위	전 세계	국가 생산량	세계 순위
니오븀	톤	1,700만	브라질(1,600만)	1	7.5만	브라질(6.6만)	1
리튬	톤	2,200만	칠레(920만)	1	10만	칠레(26,000)	2
			아르헨티나(220만)	3		아르헨티나(6,200)	4
			브라질(9.5만)	7		브라질(1,500)	5
구리	톤	8.8억	칠레(2억)	1	2,100만	칠레(560만)	1
			페루(0.8억)	3		페루(220만)	2
			멕시코(0.5억)	5		멕시코(72만)	10
몰리브덴	톤	1,600만	페루(230만)	3	30만	칠레(5.1만)	2
			칠레(140만)	4		페루(3.2만)	4
			멕시코(13만)	8		멕시코(1.8만)	5
니켈	톤	9,500만	브라질(1,600만)	3	270만	브라질(10만)	8
아연	톤	2.5억	페루(0.19억)	4	1,300만	페루(160만)	2
			멕시코(0.19억)	4		멕시코(72만)	6
			볼리비아(0.05억)	9		볼리비아(49만)	7
희토류	톤	12,000만	브라질(2,100만)	3	28만	브라질(500)	9
망간	톤	15억	브라질(27,000만)	2	2,000만	브라질(40만)	9
			멕시코(500만)	9		멕시코(20만)	11
코발트	톤	760만	쿠바(50만)	4	17만	쿠바(3,900)	6
마그네슘	톤	72억	브라질(2억)	6	3,000만	브라질(200만)	2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2

## ▣ 공급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 자동차부품

#### 나. 진출전략

- 주요 글로벌 자동차 OEM사는 멕시코 현지 생산거점 설립 및 현지 소싱 진행 중
  - 멕시코 최대 OEM사 GM을 비롯한 현지 주요 OEM사와의 핀포인트 상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
- 콜롬비아의 경우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입쿼터제 실시로 향후 FTA 미체결국 수입차 대비 한국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전망
  - 전기차 충전 관련 등 현지 수입 의존 부품 위주 국산 제품 우수성 홍보 및 화상상담 추진 등 중장기 진출 촉진 전략 마련
- 파나마의 경우 자동차부품은 '21년 발효된 한-중미 FTA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어 인근 국가들은 파나마의 거점을 두고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전시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행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에 대응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차산업 부양법을 제정('22.9월),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 아르헨티나 글로벌 OEM 및 local 협력사(Tier 1, 2)와의 협력 수요 발굴 및 GP 사업 추진

## ▣ 원자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 리튬, 대두, 흑연

#### 나. 진출전략

- 중남미는 우리나라에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
  - 주요 원자재 수입국 순위 ('23.1~9월): 원유(멕시코8위, 브라질10위), 동광(칠레2위, 페루4위, 멕시코10위), 철강(브라질 2위, 칠레5위, 페루9위), 펄프(브라질 2위, 칠레 3위), 수산화리튬(칠레 2위), 대두(브라질 2위), 주석괴(페루 5위)
  - 러-우 사태 및 최근 중국 흑연 품목 임시수출통제 등으로 원자재 대체 공급선 부상
- 공관·무역관 협력을 통한 주정부, 현지기업, 협회 등과 초기접촉 시도
  - 민간기업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중남미 공급선 발굴, 소싱 가능성 제고
  - 공급망거점무역관(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산티아고) 활용
- 중남미 핵심 광물 광산 및 관련 시설·공장 지분 인수 검토

## 3-2. K-Culture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인기로 한국문화 및 제품 소비 수요 급증에 힘입어 對중남미 소비재 수출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중남미 지역 한류 동호회 회원수 2배 이상 증가 ('17년 492만명 → '21년(1,023만명)
  - '23년 1~9월 한류 관련 품목 전년대비 수출 증가: 화장품(+23.8%), 주류(+51.6%), 소스류(+26.4%), 차류(+75.5%) 등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경기침체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가성비를 따지나, 가격 외에 '가치'를 소비 결정의 주요인으로 고려하는 현상 관찰
  -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시 가격과 가치를 동시 고려하는 '가치소비' 유행
  -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의식이 내성화되고, 미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따라 미래 가치가 있는 제품 구매 선호
- 한류 붐에 기반하여 문화콘텐츠 소비가 한국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례 확대
  - (뷰티) K-Pop, 한류 인기와 더불어 한국 화장법이 유행하며 뷰티제품 수출 증가
  - (식품) 한국 드라마 내 노출 상품을 중심으로 라면, 레토르트, 김치 등 소비 증가
  - (기타) K-Pop 굿즈, 한류스타 착용 제품은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소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 화장품, 한류 관련 굿즈

#### 나. 진출전략

-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브라질 내 한류콘텐츠 인기 확산 및 한국 식품 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식품 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디지털 마케팅 효과가 큰 현지 소비재 시장을 고려하여 주요 식품 유통망 대상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배포 및 SNS 상품 홍보 지원
- 멕시코의 경우 OTT를 통한 한국 드라마 시청 인기로 멕시코 소비자의 한국 트렌드 접근성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최근 10년간('02-'22) 10배 증가
  - 멕시코 내 한류 확산에 대응하여 K-Lifestyle 사업 등 문화융합 소비재 행사 추진



- 페루의 경우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 사용률이 '13년 대비 30% 성장한 38%를 기록하였는데 현지 주요 일간지들은 스킨케어 시장 성장의 원인으로 K-뷰티를 지목함
  - 현지 화장품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가 높은 인증 장벽임을 고려하여 페루 화장품 협회와 인증부터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 지원을 위한 토털 패키지 사업 추진
- 과테말라의 경우 화장품 수입 인증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인근국 대비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고 전년대비 한국 화장품 수입이 13% 증가함
  - 온라인 판매, 한류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한류팬의 주를 이루는 중산층과 젊은 소비층을 집중 공략

### 3-3. 디지털 전환 정책 수요 맞춤형 ICT 시장 진출 지원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지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마트 SOC 신규 수요 증가 추세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디지털 전환 정책이 치안, 교통, 재난, 통신 등 전 분야로 확산
  - \* 멕시코는 제조업, 교육, 의료, 금융, 물류, 교통, 치안 등 산업 전반에서 DX도입 추진
  - \* 멕시코 기업의 57%이상이 생산 공정에 인공 지능 도입 계획, '25년 인공 지능 투자액 1억 3백만 달러 전망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중남미 ICT분야 수요 포착, 비즈니스 기회 확대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5G) 디지털 전환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5G 도입은 중남미는 현재 초기 단계, 중남미 13개국이 5G 도입 또는 도입 준비 중
  - (멕시코) 2021년 말에야 첫 5G 보급이 시작되어 아직 초기 상태이며 Telcel(America Movil)과 AT&T 2개 사만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대도시에는 5G가 기 보급, '25년까지 전국의 약 12%에 5G가 보급될 전망
  - (브라질) 통신망 확충에 따라 스마트팜·스마트시티·스마트 물관리 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프로젝트 발주 증가
    - \*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아 등 대도시는 5G, 농촌·지방도시에는 3G·4G망이 구축되고 있음
    - \* 시정부들은 LED 가로등 건설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주
- (스마트시티) 코로나19 시기 중 비대면 서비스 시범 도입 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치안, 교통, 재난, 통신 등 전 분야로 확대됨
  - (콜롬비아)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민간·공공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육성정책' 추진
  - (브라질)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 구축 전략' 추진
  - (에콰도르)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에콰도르 디지털' 정책 추진
- (IoT) 중남미 IoT 신규 사용자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5억 1,3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 (스마트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Agritech에 대한 관심 증대
  -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신임 대통령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혁신을 위해 농업 투자 확대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 농업 4.0(Agricultura 4.0) 시대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마련 중

- (콜롬비아) 벼농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시범사업 등 MDB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중
- (브라질) 농업 대기업 위주로 사탕수수·옥수수·대두 등 경작에 스마트기술 활용하는 추세를 보임
- (스마트 팩토리) 생산 자동화, 생산관리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 확대 움직임 포착
  - (멕시코) 코로나19를 계기로 산업계 전반 DX 도입 가속화되고 있으며, 멕시코 기업의 57% 이상이 비즈니스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 \* '19년 1,530만 달러 수준이었던 멕시코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 투자액은 '22년 약 1억 7,500만 달러로 11.43배 증가
  - (브라질) WEG, 네슬레, 지멘스 등 브라질 대기업·글로벌 기업은 제조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으며, 실제 로봇, 공장 자동화 솔루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술이 각광을 받는 추세로 광산, 건설 현장, 상하수도 설비 등 '위험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시장' 성장이 전망됨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가. 유망품목 : 인공지능, 5G, 스마트시티, 스마트의료, 스마트팜

#### 나. 진출전략

분야	분야별 진출방안
인공지능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원격의료, 빅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등 분야 상호협력</li> <li>- 코로나19 방역, 언택트 경제 관련 기술로 다양하게 활용</li> <li>- 음성 식별, 안면 인식,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를 대표로 하는 AI 기술 발전과 스마트 로봇 기능을 제조업에 활용한 공장 자동화</li> </ul>
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부품, 통신 모듈, 콘텐츠 진출 가능</li> <li>- 멕시코 5G 구축 및 보급 진행 중이며 5G 활용 스마트 제조, 스마트시티 등 활용 분야 다대</li> <li>- AR·VR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개발</li> </ul>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진출</li> <li>- 일반적으로 정부 진행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개 입찰에 외국 기업 프로젝트 직접 수주는 다소 어려움</li> <li>- 도시 인프라 시설 관리, 보안 장비 설치·관리 등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제품, 기술, 솔루션 등 제공 가능</li> <li>• 지방정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참여</li> <li>- 지방정부 복지(의료, 교육, 보안) 관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개 입찰 직접 참여</li> </ul>
스마트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병원 구축에 다른 스마트의료 관련 제품 협력</li> <li>- 의료자원 부족, 의료 인프라 지역 불균형, 코로나19 등 요인으로 스마트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li> <li>- 멕시코 스마트의료는 발전 단계지만,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산업과 기술, 의료단체와 멕시코 병원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의료 프로젝트 협력 가능</li> <li>- 스마트 재활기기, 영상보조시스템, 의료 빅데이터, 의료로봇, 건강관리 솔루션, 질병 예측 솔루션 등 스마트의료 제품 분야 협력 가능</li> </ul>
스마트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협·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팜 프로젝트 진출</li> <li>- 스마트팜 분야는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외국 기업의 단독 진출이 다소 어려움</li> <li>- 현지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작물 재배, 축산 분야 스마트팜 기술, ICT 기자재, 센서, 농업용 로봇, 드론, 하드웨어, 스마트 온실 등 분야 진출 가능</li> </ul>

### 3-4. 조달시장 공약을 통한 K-메디컬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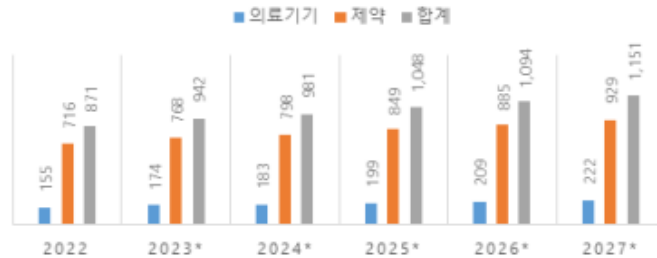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보건 의료 시장, 노령화·정부지출 확대로 성장세 유지 전망
- \* 중남미 보건 의료 시장 : '22년-'27년간 32% 성장 전망 (BMI, '23)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남미는 전세계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년층 인구 비율이 8.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잠재 수요가 높음

중남미 보건 의료 시장전망



출처: BMI Report ('23.6)

- 또한, 고혈압·위장질환·당뇨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3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하여 총가치가 7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역내 핑크타이드 기조 확산으로 역내 보편복지 및 공공의료 부문 확대 움직임.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고가의 의약품 수입 가격이 애로가 있는바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출이 유망함
- 브라질 공동개발협력(PDP)제도, 칠레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페루 국가 보건 인프라 개선 공약 등 각국의 정부 정책 수립이 이어지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SUS(통합 보건 시스템)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부의 의료산업 관여도 확대 추세
  - \* 국민의 38%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인구 1천 명 기준 병상 수 1개, 의사 2.4명, 간호사 2.9명으로 OECD 최저 수준

- 멕시코 정부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 의료 및 의약품 제공, 사회복지 병원(IMSS) 확대 등의 정책 추진
- 페루의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단축되어 진입 장벽이 낮음
  - \* 2015년 한국이 의료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의료제품 등록 절차 시간 단축
  - \*\* 안데스 공동체 내 인증 공유로 인해 인근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으로의 진출 용이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 만성질환 관련 제네릭의약품

#### 나. 진출전략

- 멕시코는 연간 264억 달러 수준의 중남미 제2의 의약품 시장으로 심장질환과 당뇨병이 사망원인 1,2위이며, 치주질환, 고혈압, 비만 등 만성 질환이 10대 질병으로 꼽혀 관련 의약품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한국은 멕시코와 FTA 미체결국으로 정부입찰 참여에 제한이 있는바 현지 납품업체를 통한 공공입찰과 민간입찰 지원 투트랙 전략을 통해 진입장벽 극복
- 브라질은 국가의료통합서비스(SUS) 예산 편성 확대로,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전망됨
  - 조달시장 입찰 수주 지원을 위한 조달 DB 구축 및 배포, 핀포인트 상담, 세미나 개최 확대 추진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파나마의 경우, 최근 현지 식약처에서 한국산 의약품의 인증 등록 절차를 최대 1년 이내로 간소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신약 및 제네릭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짐.
  - 저가 제품은 중국산, 첨단 기술이 필요한 완제품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수입에 의존하는 현지 시장구조를 활용하여 현지 제조되지 않는 진단기기와 고가의 선진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발굴

### 3-5. G2G 및 방위산업을 통한 新수출 동력 확보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정부는 계약 투명성을 위해 G2G 방식을 선호하며, 치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방산 수요 증가  
\* 과거 단순 물품 납품에서 서비스 분야로 G2G 지원 영역 확대중이며, 마약 단속을 위해 경공격기, 경비함, 군용차량 등 수요 증가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10년 (2011-2020년)간 중남미 전체 무기 수입의 38%를 미국이 차지하고 그 외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후발주자인 한국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임.
- 그럼에도, 중남미 지역은 테러조직과의 분쟁, 인구 10만명 당 살인을 최고 수준으로 치안불안이 심한 지역이며 국경지역에서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여 이와 관련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방산물자 수입 이후에 사후 관리 및 부품 수급 문제에 애로를 겪는 중남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 물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중남미 다수국이 무기 구입 시 투명성 제고 및 수출국 정부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요구를 위해 판매업체가 아닌 판매국 정부와 계약을 희망하는 추세임.
- 한편,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중남미 각국의 건축재정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전반에 걸친 ‘정부 역할 강화’에 따라 SOC 프로젝트 확충을 위한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성공사례도 지속 창출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 유망품목 : 탄약, 군용트럭, 재해복구 용품

##### 나. 진출전략

- 중남미 다수국이 무기 구입 시 투명성 제고 및 수출국 정부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 요구를 위해 판매업체가 아닌 판매국 정부와 계약을 희망하는 추세임.
  - 현지 공관, 무관, KOTRA,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중남미방산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사절단, 현지 주요 전시회, 정부 간 계약(G2G)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예정

- 코로나19에 따른 중남미 내 경기 침체와 국방·치안예산 감소로 다목적 방산 품목 위주 틈새시장 적극 발굴
- 중남미 내 상당수 국가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우리 정부 수출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진출사례나 KSP, ODA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페루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재해와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건설 프로젝트 수요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 조립식 교량 및 주택, 재해 복구 펌프, 병충해 및 질병 대응 용품 등
- 공항, 건설·운영, 메트로 노선 확대 공사 등 G2G 프로젝트 수요 발굴
  -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추진 예정인 각국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중 우리 기술 선도분야 집중 공략
-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 현지 공관, 방진회, 코트라, 한국 기업 간 공조 및 방산전시회 참가
- ODA 및 MDB 자금 활용을 통한 금융 지원 노력 확대

### 3-6.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 정책 적극 활용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남미 정부는 계약 투명성을 위해 G2G 방식을 선호하며, 치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방산 수요 증가
- \* 과거 단순 물품 납품에서 서비스 분야로 G2G 지원 영역 확대중이며, 마약 단속을 위해 경공격기, 경비함, 군용차량 등 수요 증가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남미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수력·태양력·풍력·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중이며, 2021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세계 1위 지역으로 파악됨
- 특히, 중남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5년부터 연평균 5%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 \* 멕시코 : 2024년 국가 에너지원 최소 35% 청정에너지를 통해 생산
- \* 브라질: 광물·철강·농업·화학기업의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공급 받고자 함
- \* 칠레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0)'인 신차 판매 비중을 100% 높일 예정
- \* 콜롬비아 : '22년 5월 시행령 895호 발표, 비전통 에너지원발전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한편, 멕시코는 온실가스 배출량 13위 국가로 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지국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기후변화 일반법을 통해 법제화함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가. 유망품목 : 태양광 모듈, 변압기, 풍력 터빈

#### 나. 진출전략

- 현지 진출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프로젝트 수주 기회 마련
  - (멕시코) AMLO 정권은 에너지 주권을 최우선시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에너지 분야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 최근 한화에너지, 한국전력, 스페코와 같은 우리 기업 진출 사례들도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달성



- (콜롬비아) 콜롬비아 페트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콜롬비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진입에 개방적임. 현지 진출 기업을 통해 콜롬비아 내 입찰 혹은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경쟁업체보다 빠르게 입수하여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보
- 기 진출 제3국 기업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가능
  - 스페인\* 등 기 진출 기업과의 사업 협력, M&A 등을 통해 중남미 그린산업을 개척한 사례(칠레 동서발전-스페인 Grenergy 컨소시엄 구성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브라질 GS Inima 등)
  - \* 스페인은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점유율이 32.8%(19년)로 1위 기록, 신재생에너지 분야 Iberdrola, Gamesa, EDPR 등이 중남미에서 활발히 사업 추진 중
-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 품목 지속 노출 및 네트워킹
  - (멕시코) 신재생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자 진출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전력청(CFE)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음
  - 한국 제품들은 기술력이 우수하나 현지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므로,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한 제품 소개 및 현지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 필요
- ODA 및 다자개발은행 자금 지원 활용
  - 멕시코 정부의 재원 확보 애로로 자금 조달 역량을 보유한 시공사 선호 경향
  - ODA 및 다자개발은행 자금 지원 등을 적극 활용 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반도체 (메모리)	선정사유
	(브라질) 2023 기준 한국은 브라질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시장점유율 52.3%로 1위를 차지함
	시장동향
	(브라질) 브라질 반도체 산업협회(Abisemi)에 따르면, 브라질산 반도체는 전체 수요의 약 10% 정도 공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90%는 수입에 의존함
경쟁동향	(브라질)
	- 2022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2.9% 감소했으나, 수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이 각각 19.2%와 10.9%로 2·3위 차지
진출방안	(브라질) 엘렉트로라르쇼(Eletrolar Show) 등 남미 주요 B2B IT가전 전시회 참가를 통해 대 브라질 비즈니스 기회 발굴
품목명 2	
진단용 시약	선정사유
	(브라질) 코로나19, 지카 등 브라질의 전염병 증가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는 시약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시장동향
	(브라질) - 열대성 기후를 보유한 브라질은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자주 창궐하는데 주요 전염병 발생 지역인 북부 및 북동부에는 검사장비 및 진단시약 등이 매우 부족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초 진단용 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2021년, 2022년에도 꾸준한 수요를 보임 - 브라질 보건부는 여러 번의 임시법안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해 면세/감세혜택을 부여함. 현재 브라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진단키트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브라질) - 2022년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13.9%로 2위를 차지.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전년대비 소폭(2.6%) 감소했으나 최근 수년간 2위 유지. - 점유율 1위는 미국(41.6%), 3위는 독일(12.9%)
진출방안	(브라질) 브라질 공공계약사 등과 협력하여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정책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품목명 3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멕시코) 멕시코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의 수혜지이자 경쟁력 있는 제조업 임금을 보유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생산거점 (브라질) - 2022년 한국의 기어박스 수출은 전년대비 37.8% 증가함 - 2022년 기준 브라질의 기어박스 수입대상국 중 1위는 일본(7억 4860만 달러, 29.6%), 2위 미국(3억 6924만 달러, 14.6%) 3위 한국(3억 5329만 달러, 14%)임. (칠레) 칠레는 자동차 제조가 전무하여, 교체 주기가 짧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페루) - 중고차 수입규제로 인한 자동차 부품시장 확대	

		<p>- 페루 내 한국 브랜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입지를 구성하고 있어 부품에 대한 지속적 수요 예상 관세율이 0%로 진출 여건 양호</p> <p>(에과도르) 한-에과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수혜, 자동차 관세 40%, 부품관세 5% 인하 등</p> <p>(과테말라) 한국산차량(신차·중고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 특히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제품 및 자동차 유지 관리 부품 수요 동반 성장 중</p> <p>(도미니카 공화국) 22년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 중 5위 대한 수입(누계) 33.6% 증가</p>
	시장동향	<p>(멕시코)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OEM 기업 다수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다대, 최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p> <p>(브라질)</p> <p>- 브라질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도 활기를 띄게 됨</p> <p>- 한국은 자동차 기어박스 수출국 중 3위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p> <p>(칠레) 2021년 총 수입액 1.6억 달러 (HS Code: 870899)</p> <p>(페루)</p> <p>- 엘니뇨 대비로 기계 부품 구매 수요 증가.</p> <p>- 애프터마켓 시장에서의 소모품 및 보수용품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p> <p>(에과도르)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p> <p>(과테말라) 신차시장 기준 기아차(2위), 현대차(3위) 등 높은 한국산 선호도 지속</p> <p>(도미니카 공화국) 한국차 신차수입 1위 등 우리차 수입 확대와 함께 부품 수요 증가</p>
	경쟁동향	<p>(멕시코)</p> <p>- 미국, 중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진출</p> <p>- 현지 진출한 자동차부품 기업이 2천여개에 달해 경쟁 치열</p> <p>(브라질)</p> <p>- 브라질 자동차 부품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미국, 독일, 한국 등 순임.</p> <p>-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들은 자동차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수요가 많은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에 밀집되어 있음</p> <p>- Bosch, Continental, Dana, Delphi 등 글로벌 회사들이 브라질에 있으며 한국의 만도, 모비스 등도 브라질에 공장을 운영함</p> <p>(칠레) 2021년 수입국 1위 미국(31.51%), 2위 중국(18.97%)</p> <p>(페루)</p> <p>- 주요경쟁사 - Delphi, Denso, Gates 등</p> <p>- 주요경쟁국 -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p> <p>(에과도르) 중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 증가, 주요 수입국 중국(40%), 일본(11%), 한국(10%), 미국(8%)</p> <p>(과테말라)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 이 시장 장악</p> <p>(도미니카 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멕시코</p>
	진출방안	<p>(멕시코)</p> <p>- 현지 생산공장 구축을 통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활용, 북미 자동차 공급망 안정 진입</p> <p>- 주요 자동차 전시회 및 포럼 지속 참가를 통한 사업기회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p> <p>- OEM 수요 선제파악을 통한 맞춤형 공급, 전기자동차 부품 (구동모터코아, 인버터, 컨버터 등)위주로 품목군 구성하여 세대 수요 선제대응</p> <p>- 주요 기업의 R&amp;D 수요 발굴하여 기술이전, 라이선싱, M&amp;A 등 다양한 협력 방안 구축</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 현지 완성차 기업들과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추진</li> <li>- 오토맥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여 등을 통한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li> </ul>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실시</li> <li>- 정품 딜러 및 개별 유통사별 전략 수립</li> </ul>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차량 및 엘니뇨 피해로 자동차 부품 수요가 높은 페루 지방 중심 마케팅 강화</li> <li>- 아레키파(155만 명), 쿠스코(139만 명), 트루히요(91만 명) 주요 디스트리뷰터 공략 마케팅</li> </ul> <p>(에콰도르) 에콰도르 자동차협회(AEADE) 회원사중 자동차 현지조립 또는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대상 신규바이어 발굴 확대</p> <p>(과테말라)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엘살바도르 FTA 발효 이후 관세 0%</p> <p>(도미니카 공화국) 코로나19이후 자동차부품 유통망 과점화</p>
품목명 4		
전기차 충전기	선정사유	(멕시코) 멕시코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시장동향	(멕시코) Bimbo, Femsa등 멕시코 대기업
	경쟁동향	(멕시코) 독일 기업 제품 수요가 높지만 가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며 유일하게 멕시코에서 충전기를 생산 중인 기업은 중국 기업 Xignux사이나 품질이 낮아 경쟁력이 높지는 않음
	진출방안	(멕시코) 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전기차 시장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 포착
품목명 5		
화장품	선정사유	<p>(멕시코) 멕시코의 화장품시장은 지속 성장중이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화장품 산업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임</li> <li>- 스킨케어 분야에서 브라질 시장은 세계 10위권 내에 위치하며 2021년 매출은 157억 헤알, 2022년은 166억 헤알 임.(1달러=5헤알)</li> <li>- 스킨케어 제품 연 매출은 2026년까지 매년 4~5%대의 성장률을 유지, 2026년 201억 헤알에 도달할 전망</li> </ul> <p>(칠레) 중산층 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화장품 수요 상승 중</p> <p>(콜롬비아) 한국 문화 및 콘텐츠에 대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음</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시장 호황, 2023년 약 6% 성장 예상</li> <li>- 2023년 기초화장품 시장 규모 약 2.5억 달러</li> <li>- 기초화장품 분야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음</li> <li>- 한류열풍으로 인해 K-화장품관심증가</li> </ul> <p>(에콰도르) 한국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 높음</p> <p>(과테말라) K-Beauty에 대한 여성소비자 관심 증대</p> <p>(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신규 수출 지속 창출</p>

	시장동향	<p>(멕시코)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시장으로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중이며 스킨 케어와 컨셔스 뷰티 유행으로 올인원 제품과 비건 화장품 수요증가 중</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점점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함</li> <li>- 백신접종 확대로 야외활동이 늘어나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li> <li>- 마스크팩에 대한 높은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전문 매장 뿐 아니라 약국 등으로 판매가 확산됨</li> </ul> <p>(칠레) 2021년 총수입액 3억 달러(HSCode:3304)</p> <p>(콜롬비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나 한국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할 전망</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화장품 시장 22억 달러 규모</li> <li>- 인구 70% 이상이 기초화장품 사용 경험 없음</li> <li>- 최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성장 가능성 높음</li> <li>- 기초화장품 사용률 '13년 8% → '23년 38%p 증가</li> </ul> <p>(에콰도르)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 유통망 확산되며 급격한 성장세</li> <li>- Siman 등에서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며 기타 Walmart, Torre 등 슈퍼체인에서 중저가 화장품 취급하고 있으나 색조 위주</li> </ul> <p>(도미니카공화국) 한류 확산과 더불어 스킨케어 제품 수요 급증</p>
	경쟁동향	<p>(멕시코) 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스페인, 중국, 브라질 제품이 주로 수입되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위(hscode3304), 점유율 10% 이상 기업이 2개뿐으로 진입장벽은 낮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 도달은 어려움</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브라질 스킨케어제품(3304.99) 수입은 1억 6,465만 달러로 점유율은 프랑스(26.8%), 스웨덴(18.3%), 미국(9.8%), 스페인(6.3%), 이스라엘(4.4%), 순임</li> <li>-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6%로 12위를 기록</li> </ul> <p>(칠레) 2021년 수입국 1위 프랑스(15.75%), 2위미국(14.37%)</p> <p>(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으로 지리적 장점을 지닌 국가들이 대부분</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쟁사( NATURA, La Roche, ISDIN, Avon 등)</li> <li>- 주요 경쟁국( 콜롬비아,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li> </ul> <p>(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43%), 멕시코(13%), 프랑스(7%), 브라질(6%), 페루(6%), 스페인(5%)</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생산업체(Flushing)가 있으며, 페루계 화장품 기업인 Belcorp 산하브랜드 (ESICA, L'BEL, CYZONE 등) 강세</li> <li>- Mumuso, Miniso 등 한류편승브랜드 진출 중</li> </ul> <p>(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및 남미(페루, 칠레 등) 화장품 브랜드 기존시장 점유</p>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화장품 전문 취급 유통사 및 한인마트 등 진출장벽이 낮은 유통망을 활용해 초기 진출</li> <li>- 저가 화장품은 가성비비를 강조하고, 고가화장품은 연계된 서비스를 통한 경험(스파, 피부진단 등)을 강조해 제품 스펙별로 맞춤형 전략 구축</li> <li>- 비건, 친환경, 유기농 등 가치를 강조해 컨서스 뷰티에 관심있는 소비자공략</li> <li>- 올인원 제품을 통해 스킨 케어 멀리즘 소비자 공략</li> <li>- 언박싱 영상, 제품 추천 영상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바이럴화</li> <li>- 공식 홈페이지, SNS, 주요 유통망(올리브영)납품 이력 등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제품 매력도 제고</li> </ul>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뷰티페어(Beauty Fair), FCE 코스메틱 에스테티카(Cosmetique, Estetica) 등 박람회 참가</li> <li>-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유지' 및 '정밀한 시장 분석'이 필요.</li> <li>- 화장품 전문가들은 "브라질 소비자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li> <li>- 높은 수입관세, ANVISA 등 인증비용 때문에 수입산 제품은 원가보다 2~3배 비싸질 수 있음</li> <li>- 브라질 로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 및 제품 성능 향상이 필요함</li> <li>- 록시땅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은 브라질의 천연 화장품 원료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브라질 내 공장을 설립함</li> </ul>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과 소득구간별 고객에 따른 전략 구상</li> <li>- 유기농 및 기능성 화장품 시장공략</li> </ul> <p>(콜롬비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바를 활용하여 진출 전략 수립</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K-뷰티 보급 확대</li> <li>- 페루 화장품상의(Copecoh)와 상담회 개최 등으로 페루 주요 유통업체 마케팅 확대</li> </ul> <p>(에콰도르) 온라인 채널(Facebook, Instagram)을 활용한 판매 및 대형 유통체인과 연결</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및 벤더를 활용하되, 진출 초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투자 필요</li> <li>- 현지 보건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상이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종 서류 작성에 협조 필요</li> <li>- '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테말라무역관 소비재 팝업 스토어, KSF사업 참여 등</li> </ul> <p>(도미니카공화국) 대형유통망과 뷰티 전문샵 유통 공략 병행 필요</p>
품목명6		
한국 식품	선정사유	(멕시코) 한류의 인기로 현지인들의 한식 수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류 팬들을 위주로만 소비되고 있어 주류 시장으로 확대 시 시장 파이 성장 여지 큼
	시장동향	(멕시코) 한류 영향으로 현지 한인마트와 한인식당에서 현지인 고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엔데믹 전환과 함께 간편식에 대한 수요 확대 중
	경쟁동향	(멕시코) 한국 식품은 대형 유통망에 입점되는 일부 품목(라면, 핫반, 만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인마트를 위주로 유통, 한인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바이어보다는 아시아식품 전반 취급 바이어가 다수이고 중식과 일식보다는 비중이 적은 상황임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이후 대폭 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li> <li>- 다양한 분야의 행사에 K푸드 코너를 마련해 한류에 관심이 없었던 대중에게도 한국 식품 경험 기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저변 확대</li> <li>- 대형 유통망에 납품하는 바이어에게 수출하여 소리아나, 체드라위, 월마트 등 현지 주요 하이퍼마트에 제품 입점</li> <li>- 라면, 즉석밥, 커피믹스 등 품목으로 성장 중인 간편식 시장 수요 공략</li> <li>- 현지 입맛에 맞춘 덜 매운 라면(까르보불닭), 이색주류(과일맛 소주와 막걸리) 등 집중 홍보</li> </ul>
품목명7		
한국 주류 및 식품, 음료	선정사유	<p>(멕시코) 멕시코는 Tequila, Pulque 등 전통 주류가 발달하여 술을 즐기는 문화임</p> <p>(에콰도르) 한류 소비 증가로 식품, 음료, 주류 수입 증가</p>
	시장동향	<p>(멕시코) 최근 한류 드라마에 나온 소맥, 막걸리 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p> <p>(에콰도르)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p>
	경쟁동향	<p>(멕시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주류로는 전통주(데킬라, 불게), 및 위스키, 맥주 등이 있음</p> <p>(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 페루(47%), 이탈리아(32%), 중국(6%), 미국(5%), 콜롬비아(4%)</p>
	진출방안	<p>(멕시코) 술 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한국주류 소비가 경험과 연계되도록 마케팅</p> <p>(에콰도르) 현지 한류 관련 행사 연계 프로모션 전략</p>
품목명8		
한류굿즈	선정사유	<p>(멕시코) 멕시코는 K-pop 콘서트도 빈번하고 대규모 팬클럽도 있을만큼 한류에 대한 수요가 높음</p>
	시장동향	<p>(멕시코) 멕시코 내 Kpop 성장으로 한류 굿즈에 대한 수요도 동반성장</p>
	경쟁동향	<p>(멕시코) 한류 굿즈의 경우 한국에서 직수입되는 정품이 가격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이며, 특히 BTS 및 블랙핑크 굿즈에 대한 수요가 높음</p>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품인증마크 등을 강조하여 가품과 차별화</li> <li>- Kpop콘서트 등과 연계한 판매부터 한인 식품 점비치까지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소비자 점점 확대</li> </ul>
품목명9		
영상진단기기	선정사유	<p>(멕시코) 현지에서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영상 진단기기는 기술력이 우수하여 경쟁력 있을 것</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2억의 인구를 기반으로 중남미 최대 보건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li> <li>- 2022년 기준 한국은 브라질의 초음파영상 진단기 1위 수입 대상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함</li> <li>- 2022년 한국의 대 브라질 의료기기(9018) 수출액은 7,872만 달러이며 이중 3,882만 달러가 초음파 영상기기 (9018.12)임.</li> </ul>
	시장동향	<p>(멕시코)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질환 조기 진단 수요 증가, 중남미에서 가장 선진화된 의료기기 시장이자 세계 2위의 의료관광지로 고품질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있음</p>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특히 첨단의료기기는 자체 기술로 생산이 어려워</li> <li>- 상당량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함</li> <li>- 필립스(Philips), GE 등 서구 의료기기 회사들은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나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함</li> <li>- 5G 등 IT기술 고도화, 보건소 신설/증설,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달은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성장을 견인함</li> </ul>
	경쟁동향	<p>(멕시코) 미국,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주로 수입하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6위 (hscode 9022)</p> <p>(브라질) 2021년 브라질의 초음파 영상기기 총수입액은 1억 256만 달러로, 1위 수입대상국은 한국(3,882만 달러, 37.5%) 2위 중국(3,277만 달러, 31.6%), 3위 미국(1,600만달러, 15.4%)임</p>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병원이나 대학 대상 제품 기부를 통한 제품 경험 기회 제공 및 인지도와 친숙도 확대</li> <li>- 의료진 대상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 기술력 홍보 및 제품 PR</li> </ul>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회 참석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정보 파악</li> <li>- 오스피탈라르(HOSPITALAR)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이며 중남미 전역의 의료기기 바이어를 발굴하기 적합함</li> </ul>
품목명10		
미용의료기기	선정사유	(멕시코) 의료관광 수요 확대로 미용의료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한류영향으로 한국의 뷰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시장동향	(멕시코) 한류에 대한 관심이 K뷰티로 확대되고 있으며 성형수술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는 의료관광 수요가 늘고 있음
	경쟁동향	(멕시코) 미국,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주로 수입하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15위 (hscode 9019)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행사에서 리프팅, 레이저 시술 등을 직접 시연하여 의료진 대상 효과를 증빙</li> <li>- 시술체험 이벤트를 통한 대중의 K-미용의료 인지도 제고 및 바이럴 마케팅 유도</li> <li>- 드라마 PPL 등을 활용하여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추진</li> </ul>
품목명11		
디지털 헬스케어용품	선정사유	(멕시코)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며 멕시코는 해당 분야 발전 초기단계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임
	시장동향	(멕시코) 만성질환자 증가로 지속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결책으로 원격의료에 주목받고 있음, 개인용 스마트 장치 및 통신인프라 확대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필요한 ICT 인프라 구축 중
	경쟁동향	(멕시코) 미국, 중국, 독일, 체코, 프랑스 등에서 원격의료기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12위 (hscode 8523.80)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 소득수준을 고려해 가성비 좋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특히 최근 유행인 개인용 스마트 장치 집중 공략</li> <li>- 정부 및 민간의 고사양 장비 도입을 위한 물밀작업으로 원격 의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구축</li> </ul>
품목명12		
보안장비	선정사유	<p>(멕시코) 멕시코의 치안 불안으로 보안용품 시장이 유망하며 최근에는 하이텍 보안장비에도 관심</p> <p>(에과도르) 에과도르 국내 치안 악화로 관련 치안, 방법 관련 제품 수요 증가</p> <p>(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 상황에 따른 CCTV 등 보안 장비 수요가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꾸준히 발생</p>
	시장동향	<p>(멕시코) 전 세계 살인율 Top5 지역이 모두 멕시코 도시인 등 치안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보안산업은 '23년 8월 GDP의 1.8%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음, 물지마 범죄 비중 증가로 범죄 예방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 IT 제품 도입 수요도 증가세</p> <p>(에과도르) 2023, 2024년 경찰, 지자체, 경비 업체 등의 관련 제품 구매 확대 계획</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과테말라 간 치안 교류 협정으로 인해 다양한 치안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에 현지</li> <li>- 경찰학교도 KOICA ODA사업을 통해 건설한 바 있어 우호적인 관계 구축</li> </ul>
	경쟁동향	<p>(멕시코) 멕시코는 주로 미국, 태국, 말련,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CCTV 수입 중</p> <p>(에과도르) 미국, 중국 제품이 관련 시장 주도</p> <p>(과테말라) 현지 저품질의 제품들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 중</p>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o Seguridad 등 보안 분야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수요 조기 파악 및 대응</li> <li>- C5, C4, C3 등 연방정부 및 주정부·시정부의 치안 프로젝트와 연계한 공공조달 수요 대응</li> </ul> <p>(에과도르) 경찰, 지자체 입찰에 공급 가능 바이어 발굴</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심사가 요구되는 현지 경찰 등의 정부 관련 입찰 및 KOICA의 현지 치안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통한</li> <li>- 현지 프로젝트 레퍼런스 확보 및 관련 입찰 수주확대 전략 필요</li> </ul>
품목명13		
의료기기	선정사유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2억의 인구를 기반으로 중남미 최대 보건 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li> <li>- 2022년 기준 한국은 브라질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1위 수입 대상국으로 수입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함</li> <li>- 2022년 한국의 대 브라질 의료기기(9018) 수출액은 7,872만 달러이며 이중 3,882만 달러가 초음파 영상기기(9018.12)임.</li> </ul> <p>(칠레) 코로나19,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루 정부, 2024년 보건 분야 예산 확대</li> <li>- 의료기기 시장 2026년까지 연평균 9% 성장 예상</li> <li>- 한국 의료기기 인증 절차 단축(공장 실사 면제)</li> </ul>

		<p>(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제품 등록 및 공공조달 진출에 혜택, 의료기기 수요 증가</p> <p>(과테말라) 의료기기의 경우 X-ray 등의 진단 장비를 제외하고는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p>
	시장동향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특히 첨단의료기기는 자체 기술로 생산이 어려워 상당량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함</li> <li>- 필립스(Philips), GE 등 서구 의료기기 회사들은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나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함</li> <li>- 5G 등 IT기술 고도화, 보건소 신설/증설,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달은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성장을 견인함</li> </ul> <p>(칠레) 2021년 총 수입액 5.6억 달러 (HS Code: 9018)</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루 의료기기 수입 시장 규모 약 5억 달러 수준</li> <li>- 2026년 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 對 한국 주요 수입 제품은 X선, 초음파기기 등</li> </ul> <p>(에콰도르) 022년 수입액, 5억 달러 수준</p> <p>(과테말라) 과테말라 병원에서는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신규 의료기기 장비 수요가 있으나 의사들이 새로운 기술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p>
	경쟁동향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브라질의 초음파 영상기기 총수입액은 1억 256만 달러로, 1위 수입대상국은 한국(3,882만 달러, 37.5%)</li> <li>- 2위 중국(3,277만 달러, 31.6%), 3위 미국(1,600만달러, 15.4%)임</li> </ul> <p>(칠레) 2021년 수입국 1위 미국(27.87%), 2위 중국(17.83%)</p>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경쟁사 (Siemens, Nipro, Elekta, Draegerwerk 등)</li> <li>- 주요경쟁국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li> </ul> <p>(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중국(29%), 미국(21%), 독일(7%), 일본(4%), 멕시코(3%), 한국(3%)</p> <p>(과테말라) 유럽산 고급 의료기기와 저가 중국산 의료기기가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중저가 시장의 경우 중국산 사용 후 낮은 품질로 이를 다시 찾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p>
	진출방안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회 참석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정보 파악</li> <li>- 오스피탈라르(HOSPITALAR)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이며 중남미 전역의 의료기기 바이어를 발굴하기 적합함</li> </ul>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 조사 및 제품 홍보</li> <li>- 유럽/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한 인지도 확보 필요</li> </ul>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루 의료기기 공공 구매 입찰 모니터링</li> <li>-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인증이 가능한 주요 디스트리뷰터 발굴</li> </ul> <p>(에콰도르) 고급 및 고가 의료기기 시장 공략</p> <p>(과테말라) 가격대비 고품질의 한국 의료기기를 현지 병원 및 의사에게 적극 홍보하고 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병행을 통한 우수한 최신 의료기기 도입 추진</p>
품목명14		

합성수지	선정사유	(브라질) 합성수지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대 브라질 3대 수출 품목 중 하나임.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44.1% 증가
	시장동향	(브라질) 합성수지는 포장재나 각종 가전제품 마감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제품으로 수요가 폭발했던 팬데믹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생활용품, 기타 제품 등에 대한 수요 확대
	경쟁동향	(브라질) Braskem 등과 같은 대기업이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독일 등의 수입산 합성수지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점유율 50% 이상, 멕시코 15% 이상
	진출방안	(브라질) Plastico Brasil 등과 같은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 (도미니카공화국) 한인유통망, 대형쇼핑몰 등 입점 추진
품목명15		
건설중장비	선정사유	(브라질) 브라질 건설시장 회복되면서 각종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 (페루) - 엘니노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 구매 수요 존재 - 페루 재정경제부, 2024년 구매 예산 확보 강조 - 광업은 '22년 기준 GDP의 11%를 차지 -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 차지 (에콰도르) 광산업 활성화로 관련 수요 증가 (도미니카공화국) 22년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 중 4위 '22년 대한 수입(누계) 147.4% 증가 (파나마) 건설분야는 파나마 경제의 핵심분야. 특히, 공공인프라 개발사업 수요가 두드러지며, 민간합작 등 민간투자도 활발한 편 (파라과이) 신정부 출범에 따라 그간 다소 주춤하였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 이에 따라 중장비와 부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브라질)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에 따라 건설시장 활성화 (페루) - 저가의 중국 제품의 경우 품질 신뢰도가 낮음 - 가격보다는 품질에 대한 보장이 필요 - 인증과 같은 규제와 관세율이 없어 진출용이 고산지대에서도 운용 가능한 중장비 필요 (에콰도르) 2022년 기준 한국 건설중장비 수입 전년 대비 17% 증가 (도미니카공화국) 범국가적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추진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건설중장비 수요 확대 (파나마) 코로나19 침체 이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활성화 (파라과이) '22년 대비 '23년 상반기의 중장비 부품 수요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신정부 출범 직전,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24년부터는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브라질) Caterpillar, Komatsu, Sany, XCMG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 중임 (페루) - 주요경쟁사 (Caterpillar, Komatsu) - 주요경쟁국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독일 등) (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중국(49%), 브라질(16%), 일본(10%), 한국(9%), 미국(5%)

		(도미니카공화국) 캐터필러 등 미국 및 글로벌 중장비 브랜드들이 시장 과점 (파나마) 미국(Caterpillar, Bobcat), 일본(Komatsu) 브랜드 (파라과이) JCB, Caterpillar, Komatsu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장비임.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신제품인 경우는 해당 브랜드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고장비는 비교적 자유롭게 부품을 사용
	진출방안	(브라질) 전문 기계 중장비 수입 유통 업체를 통하거나, MT 등과 같은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 (페루) - 현지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에이전트 물색 필요 - 중장비 및 건설기기 품목 중심의 사절단 활용 (에콰도르) 대형 광산 개발업체에 밀착 영업 (도미니카공화국) 소형 중장비 중심으로 중소형 건설 프로젝트 공략 필요 (파나마) 건설 중장비의 부속 및 부분품 시장 공략 (파라과이) 상기 브랜드와 호환 가능한 어터치먼트 또는 부분품이 현지 진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비교적 고가의 어터치먼트의 경우 할부제 도입 지원 및 현지 마케팅 협조로 파트너사와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필요함
품목명16		
평판 압연 제품	선정사유	(브라질) 평판압연제품은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22년
	시장동향	(브라질)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평판압연제품은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브라질) 2022년 브라질의 평판압연제품(HS Code 7210, 7208, 7225) 총수입액은 21억 2842만 달러이며 1위는 중국(14억 2,367만달러, 67%) 2위한국(1억 7,027만달러, 8%), 3위 오스트리아(1억 3,958만달러, 6.6%)임
	진출방안	(브라질)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 등과 같은 전문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 발굴 및 브라질 진출 방안 모색
품목명17		
농약	선정사유	(브라질) 농약은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국가인 브라질의 주요 수입품 중 하나임.
	시장동향	(브라질) 브라질 대두, 옥수수 등과 같은 다수의 농산물 분야에서 생산 및 수출 세계 1위 국가로 농약 수요가 매우 높음
	경쟁동향	(브라질) 2022년 기준 브라질의 농약 수입 대상국 1위는 중국(31억 400만 달러, 43.7%), 2위 미국(12억 7290만 달러, 17.9%), 3위 인도(7억 399만 달러, 12.5%) 등임. 한국은 15위 (5,127만 달러, 0.7%)에 위치함
	진출방안	(브라질) Agrishow 등과 같은 농업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
품목명18		
태양광 모듈	선정사유	(칠레) 칠레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절반가량이 태양광 발전 (콜롬비아)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콜롬비아는 전력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 생산 기반이 전무한 편이기에 발전소 건설 등의 그린정책에 필요한 제품들의 수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칠레) 2021년 총수입액 1.7억 달러(HSCode:854140) (콜롬비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에너지 협회들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의욕 증가도 주목됨
	경쟁동향	(칠레) 2021년 수입국 1위중국(95.52%), 2위 스페인(1.95%)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루마니아, 미국이며 한중일의 수입 시장점유율도 높음
	진출방안	(칠레) -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술력 홍보 중요 - 중국 제품과 경쟁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 (콜롬비아) 저렴한 중국제품이 있기에 한국수입품의 비교적 품질 신뢰도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품질 중심의 방안 마련 권고
품목명19		
LED전등	선정사유	(칠레)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지능형 LED조명 인기 급상승
	시장동향	(칠레) 2021년 총수입액 2.3억 달러(HSCode:9405)
	경쟁동향	(칠레) 2021년 수입국 1위 중국(84.27%), 2위 스페인(2.30%)
	진출방안	(칠레) - 가격 경쟁력 및 에너지 효율성 견비 - 사용환경에 따른 시스템 조절 기술 개발
품목명20		
에너지 저장장치	선정사유	(칠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정책 추진 중
	시장동향	(칠레) 2021년 총 수입액 0.4억 달러 (HSCode : 850760)
	경쟁동향	(칠레) 2021년 수입국 1위 중국(64.49%), 2위 일본(9.64%)
	진출방안	(칠레) 중국 제품과 경쟁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
품목명		
굴착기	선정사유	(콜롬비아) 정부는 불모지개발 프로젝트와 4G와 5G 인프라 구축사업을 강하게 추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공에 필요한 중장비 수입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
	시장동향	(콜롬비아) 콜롬비아 수입 엑스커베이터 시장은 성장기로 '22년 기준 전년대비 약 40%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이며 한국은 '22년에 성장률 약 128%를 기록하며 큰 강세를 보여주었고 '23년 상반기에는 일본(162%)과 프랑스(8,774%)의 무서운 성장 사이에 약 9%의 증가수치를 기록
	진출방안	(콜롬비아)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도로공사 및 불모지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수주를 준비 중인 혹은 절차 중에 있는 콜롬비아 건설회사 공략
품목명21		
CCTV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 사업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감시시스템에 필요한 카메라를 필요로 함
	시장동향	(콜롬비아) 소방청과 교통관리기관 등의 감시가 필요한 조직들은 부족한 카메라

		보유량에 증가를 요청함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콜롬비아는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에 높은 신뢰도 보여주기에 한국산 카메라는 수입 시장 진출에 있어 잠재력 보유
	진출방안	(콜롬비아) 현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정부간의 G2G 협업 및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진출을 권고
품목명22		
드론	선정사유	(콜롬비아) 치안, 농업, 레저 등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
	시장동향	(콜롬비아) 드론 관련 규제 및 인증제도 도입되고, 제도에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에 드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경쟁동향	(콜롬비아) 현재 중국산 드론이 콜롬비아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위 10개국 내외에 위치
	진출방안	(콜롬비아) 드론 자체보다는 어떤 목적의 드론이 어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안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권고
품목명23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소비 패턴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적 측면을 이유로 전기차보다 훨씬 큰 선호도를 보임
	시장동향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꾸준히 늘어가는 수요는 '23년도에 있었던 일반 자동차의 둔화기에도 증가율을 기록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 브랜드는 일본, 미국, 한국이며 미국과 한국은 자국에서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자국 및 브라질 생산 공장, 두 곳에서 수출 중
	진출방안	(콜롬비아) 저공해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 추세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 수요 또한 유지 될 것을 전망하며 기존의 강세시장인 한국산 부품 유통 시장 확장 방안 모색 필요
품목명24		
클러치와 그 부분품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높은 중고차 선호도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강한 신뢰도를 전제로 성장하는 콜롬비아 클러치 수입시장에 한국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전망
	시장동향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수입 클러치시장은 계속되는 성장세에 있으며 한국은 그중 최대 수출 국가로 시장 점유율 약 24%를 가지고 있음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한국, 중국, 미국이며 한국은 1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왔음
	진출방안	(콜롬비아) FTA 관세혜택을 사용해 기존의 공급망 유지 및 확대 필요
품목명25		
비료용 질산염 혼합물	선정사유	(콜롬비아) 정부의 농산업개발정책과 코로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세계적 영향으로 인한 자급자족사회 구축 지향 정책은 식량 생산업에 크게 중요한 비료의 큰 수요를 전망
	시장동향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해당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지만 아주 소단위로 수입 비료 의존도가 높고 최근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효과로 인한 식량 가격 증감에 비료 시장 확장 전망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수입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이며 중국 또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진출방안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농업용 소비재 구매 패턴은 주로 농업 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출 시 유통보다는 농업 조합을 중심으로 공급망 공략
품목명26		
필수 아미노산과 에테르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애완동물 관련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 관리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화합물임
	시장동향	(콜롬비아) 콜롬비아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갈수록 사료 등 동물용 먹이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추세이며 사료 및 수의약품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 고급화 심리 변화에 따라 제품 생산에 효과적인 원료 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임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 일본이며 최근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도 인상되어 콜롬비아 수입시장이 위축됨
	진출방안	(콜롬비아)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B2B이기에 여러 바이어와 접촉/거래하거나 동물용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업체 다수와 유통하는 업체(도매상)를 위주로 공급망 확보 가능
품목명27		
폴리에스테르 섬유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국가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섬유 산업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시장동향	(콜롬비아) 섬유는 가구, 의류 등의 다양한 제조업에 사용되며 꾸준한 수요를 유지
	경쟁동향	(콜롬비아)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중국산은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지만 품질 하자 및 납기일 경과 등의 문제로 한국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콜롬비아)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한국기업은 콜롬비아의 큰 제조업 회사들 혹은 대기업들과 직거래를 하는 도매상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추천
품목명28		
의약품	선정사유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루 정부, 2024년 보건분야 예산 확대</li> <li>- 2015년부터 한국 의약품 인증 절차 단축</li> <li>- 안데스공동체 가입국 진출용이</li> <li>-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 진출 여건 양호</li> </ul> <p>(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제품 등록 및 공공조달 진출에 혜택, 의약품 수요 안정적</p> <p>(과테말라) 높은 반공충 비율로 인해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가 항시 부족</p> <p>(도미니카공화국) 22년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 중 7위</p>
	시장동향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월부로 정부 공공구매 입찰 정상화</li> <li>- 2023년 8월 기준, 한국 의약품(HS300241)수입 5.9% 증가</li> </ul> <p>(에콰도르) 2022년 수입액, 9억 달러 수준</p> <p>(과테말라) 공공부문 조달시장 기준 10대 조달업체의 낙찰규모는 평균적으로 2억 달러 내외</p> <p>(도미니카공화국) 병원용 수액 등 일반·전문 의약품 수요 다대</p>

	경쟁동향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경쟁사 (Roche, Pfizer, Merck, Sanofi, Novartis)</li> <li>- 주요경쟁국 (미국, 독일, 인도, 콜롬비아, 멕시코 등)</li> </ul> <p>(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16%), 멕시코(9%), 아르헨티나(7%), 독일(7%), 인도(6%)</p> <p>(과테말라)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p> <p>(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p>
	진출방안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월부터 정부 공공 구매 입찰 정상화</li> <li>- 2023년 8월 기준, 한국의약품(HS300241)수입 5.9%증가</li> </ul> <p>(에콰도르) 에콰도르 의약품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고경쟁력 제품 위주 시장 진출</li> <li>-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현지 낙찰 경험이 많은 유력 조달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li> </ul> <p>(도미니카공화국) 사립병원 납품 유통망과의 협업 필요</p>
품목명29		
오일&가스 배관시설, 기자재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오일&가스 프로젝트가 경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으로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배관의 경우 현지에서 제조가 가능</li> <li>- 다만, 전반적인 시설에 필요한 밸브류, 기자재류의 경우 제조기업이 전무해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li> </ul>
	경쟁동향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입국은 중국(40%), 미국(16%), 이탈리아(7%)</li> <li>- 저가의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 장악</li> <li>- 중국산을 제외한 미국/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높은 품질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현지에 인식되어 있음</li> </ul>
	진출방안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수주 가능한 파트너사 발굴 중요</li> <li>- 동 품목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로 대량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유력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사 발굴을 통해 시장 진입 추진 필요</li> </ul>
품목명30		
인프라 구축 용기 자재	선정사유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일&amp;가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으로 전력산업 공공조달 수요성장</li> <li>- 차기 정부도 현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자재 수요도 증가할 전망</li> </ul>
	시장동향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에이전트와 진행</li> <li>- 현지 에이전트가 여러 공급업체 가격을 비교해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으로 우리기업 제품이 가격 경쟁력 열위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li> </ul>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중국, 일본 및 브라질 제품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브라질 생산 제품의 경우,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으로 인한 유리한 관세 및 물류 측면에서 제품 조달이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어 한국제품이 가격/품질 경쟁력 모두 갖추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 - 대부분 입찰로 구매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품질경쟁력 또는 차별화된 파인닝 제품 등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31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설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 현지 진출 자동차 OEM(GM, VW, FORD 등)에서 4차 산업(자동차 설비)에 투자 중으로 생산자동차 시스템, 자동 컨베이어벨트, 로봇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OEM(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 (SUV, PICK UP) 생산 라인 추가 등으로 자동차 산업 생산시설 관련 투자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제조 관련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설비·기자재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판매는 다소 저조하나 브라질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생산량 증가 추세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자동차 시설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프로젝트 적합 여부,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 -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다른 품목보다 높아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reference 등을 고려해 주요 공급업체들과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 미국, 유럽 등지에서 OEM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reference를 활용해 접근하면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 현대차 납품 이력도 어필이 가능하므로 활용 필요. 현지 주요 공급업체(TIER 1, 2)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진출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음
품목명32		
High-End 의료기기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 23년부,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발급한 자유판매 증명서(CFS)를 제품 등록 서류로 인정, 의료기기 등록 절차 간소화 - 아르헨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관심도 및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24년 정권 교체 시 수입규제가 완화되며, 최근 1년간 크게 감소한 수입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 23년도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바이어들의 거래 결정 보류, 정부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수입규제로 거래 차질이 발생했으나, '24년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화가 되면 수입여건 점차 개선 전망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 저가 중국, 인도산 의료기기 및 Low-Tech 제품의 경우에는 현지 제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High-Tech 제품의 경우 현지 R&D 투자기업 부재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중국 외에도 인도 정부 측이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산업 진출에 관심을 보여 한국과의 경쟁 심화 예상(Expomedical 등 주요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전시회에 국가관 설치 등)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저가 중국제 또는 고가 유럽/미국/일본제품들이 기존 수입시장을 장악- 한국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지도가 상승하며, 시장진출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제품 등록이슈(고위생국 판매 증명서가 없을 시 현지 식약처 등록 애로)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 현지 의료기기 등록절차 간소화를 활용, 현지 식약처 등록 유력 바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 추진 -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디지털·IT 기술 등이 접목된 High-Tech 제품의 시장 진입이 유리 - 의료기기 사절단, 현지 전문전시회(Expomedical) 참가 등 현지 방문 사업 추진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의 경우 높은 비용과 원거리로 인한 비싼료. 현지 방문을 통해 유력 바이어들과 면담 및 스킨십을 형성하는 방안도 효과적.
품목명33		
인스턴트 조리식품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 한류 전파로 인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 다만, 조리가 어려운 식품보다는 손쉽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 현지 시장 진출이 유리할 전망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 현지 대형 유통마켓에는 Maruchan 등 브라질에서 제조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이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없음 - 라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인스턴트 조리식품은 아직까지 한인 슈퍼마켓, 차이나타운 등 아시아 식품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 여지가 있음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라면의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일본 메이커 제품이 가장 큰 경쟁자이며, 최근 한국산 라면의 디자인과 포장을 그대로 모방한 중국산 제품도 일부 유통 중 - 다만, 불닭볶음면 등 한국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내 대형 유통망 진출 등 노력 필요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 현지 유통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 도모, 온라인 유통망 등 활용 필요. - MZ 세대 공략을 위한 SNS 마케팅 시행 등
품목명34		
승용차	선정사유	(에콰도르) -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수혜, 자동차 관세 40%, 부품관세 5% 인하, 한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도미니카공화국) 22년 신차 수입 시장 점유 1위 세단 (40.7%), SUV(25.9%)
	시장동향	(에콰도르) 한국산 일반 자동차 현지 점유율 20%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 현지 점유율 45%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수입 확대 및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증가

	경쟁동향	(에과도르) EU와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혜택으로 EU국가 차량 및 저가의 중국산 차량과 경쟁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일본, 한국
	진출방안	(에과도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적극적 프로모션 행사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한국자동차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진입 가능
품목명35		
압연강판	선정사유	(에과도르) 백색가전 현지조립 생산 증가로 관련 원자재 수요 증가
	시장동향	(에과도르) 2023년 상반기 한국 제품 수입 전년 동기 대비 2,090% 증가
	경쟁동향	(에과도르) 주요 수입국 일본(45%), 중국(25%), 브라질(22%), 한국(5%)
	진출방안	(에과도르) 백색가전 업체,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대상 바이어 발굴
품목명		
정밀 화학 원료	선정사유	(에과도르) 국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폴로프로필렌 등 정밀화학원료 수요 안정적
	시장동향	(에과도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수입 규모 3900만달러 수준
	경쟁동향	(에과도르) 주요 수입국 미국(38%), 중국(14%), 브라질(14%), 한국(8%)
	진출방안	(에과도르) 에과도르 플라스틱협회(ASEPLAS) 회원사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36		
건축 마감재	선정사유	(과테말라) 과테말라 내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이 높아 부유층을 위한 신축 건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음
	시장동향	(과테말라) 현지 건축과 시공에서의 현지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으나, 건축 마감재의 경우 부유층을 위한 고급 마감재에 대한 수요 존재
	경쟁동향	(과테말라) 현재 중국산 마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진출방안	(과테말라)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다양한 한국 건설 마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현지 건설사와의 파트너링을 통해 꾸준한 오더 수요 발굴
품목명37		
철강	선정사유	(과테말라) 현지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우수한 한국 철강 제품 수출 가능성 존재
	시장동향	(과테말라) 현지 수요는 높으며, 한국산 철강은 직접 수출보다는 FTA 비준이 완료된 중미 인근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쟁동향	(과테말라) 멕시코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출방안	(과테말라) 한-과테말라 FTA 협상 품목 중에 철강은 일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수출보다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같은 철강을 포함한 한-중미 FTA 체결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38		
섬유 원부자재	선정사유	(과테말라) 현지 한인을 포함한 섬유 공장이 많아 관련 원자재 등의 수요 꾸준히 발생 중
	시장동향	(과테말라) 봉제업 중심의 의류는 과테말라의 대 미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꾸준한 섬유 원자재 수요 발생

	경쟁동향	(과테말라) 현재 역내 또는 저가의 중국산 원자재 조달 중이며, 섬유기계는 고급 독일제 중심으로 사용 중
	진출방안	(과테말라) 한국 원자재의 단가를 낮추는 물류와 한국산 섬유기계의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을 내세운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39		
건강 음료	선정사유	(과테말라) 한국산 제품수요 급증품목
	시장동향	(과테말라) - 주류, 탄산음료, 넥타, 생수제품 현지생산, 경쟁 치열 - 탄산음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생기며 스포츠드링크, 건강음료 위주로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과테말라) - 멕시코, 중미 모두 생산하며 역내 교역 활발 - PEPSI, AMBEV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최근 저품질의 알로에 함유량이 허위 표기되거나 한국산 제품과 유사한 라벨을 활용한 중국산, 동남아산 알로에 음료들이 시장을 교란 중
	진출방안	(과테말라) - 알로에베라, 코코넛 등 현지 미생산 제품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 에너지드링크, 캔 커피 등 제품 수요가 다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음료 등 건강음료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높음 - 경쟁사 제품 대비 고품질의 제품임을 강조하는 마케팅 진행 필요
품목명40		
자동차배터리 그 외 부품	선정사유	(과테말라)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파나마) 대파나마 한국수출 3년(2020~2022) 연평균 증가율 18%, 올해(2023년 1~7월) 전년도 58배 증가
	시장동향	(과테말라) 멕시코산에 이어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2위 차지 (파나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높은 수요 유지
	경쟁동향	(과테말라)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브랜드 각축장 (파나마) 미국(Optima), 독일(Bosch) 등의 브랜드가 유명
	진출방안	(과테말라) - 한-중미FTA 발효국 우선 진출 - 엘살바도르 관세 즉시 철폐, 온두라스 10년 균등 철폐 -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파나마) 현지 자동차 부품 대리점 바이어 혹은 도매상 바이어 발굴
품목명41		
전기부품품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 중 2위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42		
화물자동차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22.5% 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빠른 경제회복, 수출자유지역 생산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물류 수요 지속 확대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다국적 중고 화물자동차의 유입(수입) 지속 확대중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현지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 네트워크를 통한 화물차의 유지·보수 경쟁력 활용 필요
품목명43		
중후판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142.7% 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22년 기준 한국 점유율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한국, 중국, 미국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건설, 시공업체를 통한 자재 납품 추진
품목명44		
축전지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수출금액 상위 10대 품목 중 9위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멕시코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45		
변압기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 '22년 수출 금액 상위 10대 품목 - '22년 대한 수입(누계)992.9%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스페인, 중국, 미국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46		
철강관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157.3% 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22년 기준 한국 점유율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한국, 중국, 미국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건설, 시공업체를 통한 자재 납품 추진
품목명47		
밸브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6,378.2% 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스페인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48		
전선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22년 대한 수입(누계) 6,032.6% 증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국 코스타리카, 미국, 스페인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49		
기호식품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신규 수출 지속 창출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 확대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멕시코 등 주변국 기호식품의 시장 점유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한인 유통점, 대형 식품점 입점
품목명50		
자동심장 충격기	선정사유	(파라과이) 예방 의료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AED 의무 설치 규정 개정. 기존에는 정부 입찰 위주로 수요가 있던 품목이나 최근에는 신규 규정 준수를 위해 민간 시장 수요도 증가 추세
	시장동향	(파라과이) 수입액을 살펴보면 '21년 18만 달러 대비 '22년도 2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4% 성장하였으며, 법규 개정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파라과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브라질 브랜드 또는 필립스 등의 다국적 기업 제품이 강세이며, 최근 중국기업들의 공격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출방안	(파라과이) 개정 규정 상 현지 의료위생관리청 (Dinavisa) 사전 등록을 마친 제품에 한해서만 유통 및 설치가 가능. 사전 등록에 능숙한 바이어가 유리. 아울러 기기의 언어 세팅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야 함
품목명51		
로봇수술기 및 관련 용품	선정사유	(파라과이)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병원을 필두로 로봇 수술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 병원에서도 입찰 공고를 검토 중에 있음. 따라서 메인 콘솔을 비롯한 관련 용품 및 소모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파라과이) 과거에는 전문의가 일부 경제력이 있는 환자 중 로봇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주변국(우루과이 또는 브라질) 출장 수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했음. 신정부 출범 후 로봇수술기 정부 입찰 공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변국으로의 의료 관광객 중 일부가 파라과이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파라과이) '23년 영국 'C'사의 로봇수술기가 현지 사립병원에 설치된 바 있음. 해외에서 로봇수술기 트레이닝을 받은 대부분의 써전들은 Davinci(미국) 브랜드에 익숙한 것으로 확인됨
	진출방안	(파라과이) '23년 영국 'C'사의 로봇수술기가 현지 사립병원에 설치된 바 있음. 해외에서 로봇수술기 트레이닝을 받은 대부분의 써전들은 Davinci(미국) 브랜드에 익숙한 것으로 확인됨
품목명52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선정사유	(파라과이) 파라과이 보건부는 고질적인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음. 오리지널 약품 대비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 의료재정 부담 축소, 의약품 접근성 향상, 선택의 폭 확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증가하는 중

	시장동향	(파라과이) '21년 기준 의료위생관리청 (Dinavisa)에 등록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Bevacizuma, rituximab로 항암작용을 하는 전문 의약품임. 파라과이 내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파라과이) 파라과이 의약품 시장은 토종기업과 외국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토종기업은 바이오시밀러 생산 능력이 없어 수입을 통해 외국기업에 경쟁하려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강세를 보임. 한편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유통시키고 있는 토종 기업들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진출방안	(파라과이) 의료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품질 및 사후관리 문제로 국제입찰로 발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국내입찰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적합한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는 것을 추천
품목명53		
소형 가전	선정사유	(파라과이) 국경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쇼핑몰에서 가장 활발히 판매되는 제품군 중 하나
	시장동향	(파라과이)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도시 중 하나인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의 경우 코로나 기간 중 방문객이 감소했으나 '23년 들어 예전 수준을 회복해 가는 중. 이에 따라 소형 가전 판매도 회복 중인 것으로 보임. 많이 팔리는 품목은 음향기기, 드라이기, 믹서기 등이 있음
	경쟁동향	(파라과이) 중국, 브라질, 유럽산이 3파전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 유통점은 중국 등 신흥국에서 생산하는 PB 제품 유통 중. 주요 브랜드로는 Midea(중국), Britania(브라질), Gama(이탈리아) 등이 있음. 음향기기는 JBL, BOSE(미국), Sony(일본) 등이 있음
	진출방안	(파라과이) 한국 제품은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나 삼성, LG 등 대기업 제품으로 인해 가전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Made by Kora'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 기존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품목명54		
기초 화장품	선정사유	(파라과이) 뷰티 제품은 가전제품과 함께 국경지역 쇼핑몰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품목. 아울러 꾸준한 경제성장 덕에 전반적으로 수요도 늘어날 전망 (파나마) 올해(2023년1~7월)전년대비 큰 폭으로 수출액 증가
	시장동향	(파라과이) 국경 쇼핑 지역인 시우닷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의 경기회복으로 화장품 수요도 증가 중. 파라과이 화장품 매출의 절반 이상을 국경 쇼핑몰을 이용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차지 (파나마) 저시장에 주로 미용을 위한 전문의약품이 많고, 소매화장품은 한국산이 흔하지 않아 공략 가능성 높음
	경쟁동향	(파라과이) 유럽산과 미국산 이주류를 이루고 있음. 브랜드 충성도가 특히 높은 품목이라 소비자들의 부모나 조부모, 친척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파나마) 프리미엄 제품으로 미국과 유럽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로 중남미 브랜드가 점유율이 높음
	진출방안	(파라과이)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 미국산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현지의 틈새 수요를 발굴한 후 그에 맞는 신기능 제품을 소개해야 함. 현지의 더운 날씨를 감안한 땀냄새 제거 기능, 모기 기피 기능, 혹은 50대 이상을 겨냥한 안티에이징 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파나마) 기초라인으로 바디크림, 핸드크림, 선크림과 같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공략 하고, 메이크업 라인으로 클렌징, 쉐딩 등의 제품 이유 망

품목명55		
비료 원료 및 첨가제	선정사유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농업이 핵심 산업으로 이와 관련된 광물성 비료 및 화학 비료는 10대 수입품목 중 하나
	시장동향	(파라과이) 대두,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이 주요 농작물이며 이들 농장에서 비료 대량 사용. 참고로 '22년 대비 '23년 농산물 작황이 좋아졌으며 '24년에도 풍작 예상
	경쟁동향	(파라과이) - 파라과이 농장 중에는 브라질이 투자한 기업이 많은 만큼 브라질로부터의 비료 수입 비중 높음 - 광물 비료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러시아 제품을 사용하는 농장도 다수
	진출방안	(파라과이) 규모 농작에 용이한 제품 위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 브라질이나 러시아산과 유사한 제품보다 원료 혹은 첨가제를 추천. 기진출한 비료업체들은 대규모 농장에게 장기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참고 요망
품목명56		
농업용 드론	선정사유	(파라과이) 대두, 옥수수, 밀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은 파라과이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광대한 농토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농지 측정, 점검, 매핑, 모니터링 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동향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경우 '17부터 농업에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음. '22년 기준 약 5천 대의 드론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 파라과이에는 드론 비행 전문학원도 있으며 커리큘럼에는 농토 매핑, 비료 살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쟁동향	(파라과이) Phantom 4, Matrice 등 중국 DJI 제품이 유명하며, 파라과이 기업이 개발한 Jetmap Agro도 사용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진출방안	(파라과이) 농업용 드론은 항공국(DINAC) 사전 허가가 필수이며, 국가 항공등록(RAN)에 등록되어있는 기업만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함. 수입 자격을 갖추고 동시에 허가 등록에 경험이 있는 바이어가 유리. 다른 국가로 수출 경험이 있다면 해당국에서의 실제 사용 장면과 후기를 적극 강조
품목명57		
동물용 질병 진단 키트 및 장비	선정사유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농업과 함께 축산업 강국.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세계 육류 수출국 11위를 기록.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10가국 중 8가국이 동물(반려동물과 가축 모두 포함)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축산업계와 일반 수의업계 모두에서 동물용 질병 진단키트의 시장성이 높은 편
	시장동향	(파라과이) 파라과이에서는 가축 대상 질병 예방 진단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 아직 질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음. 하지만 파라과이는 축산업이 중요한 국가이므로 가축 대상 진단키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참고로 파라과이 축산 검역청 분석실험실은 유료 진단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류 독감 등의 유행성 질병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경쟁동향	(파라과이) 진단시약과 기기의 경우 미국, 이스라엘, 유럽등지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 소모품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중임
	진출방안	(파라과이) 자체 Lab을 통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유리. 축산용 가축의 경우 수도권에서 먼 농장에 출장 진단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신속진단 키트 위주로 선점하는 것이 유망



품목명58		
토목공사 및 건축기계류	선정사유	(파나마) 10년간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액 약 70% 증가(HS코드 6단위 기준 상위 6위)
	시장동향	(파나마) 파나마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경쟁동향	(파나마) 중국산, 유럽 제품과의 품질·가격경쟁
	진출방안	(파나마) 건설프로젝트 납품 업체를 통한 수입선 발굴
품목명59		
정수기 제품	선정사유	(파나마) 10년간 파나마 수입액 증가 추세, 편리성 추구 소비자 확대
	시장동향	(파나마) 정수기 수요 확대, 새로운 모델·라인 시장진입
	경쟁동향	(파나마) 중국, 중남미, 유럽 등 다양한 국가 브랜드 경쟁치열
	진출방안	(파나마) 현지 유명 유통사 발굴 및 소량 샘플오더에 대응
품목명60		
친환경 용기	선정사유	(파나마) 정부규제 및 인식변화에 따른 유망 품목
	시장동향	(파나마)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규제, 친환경 대체재 수요 증가
	경쟁동향	(파나마)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산 제품 다양
	진출방안	(파나마) 시장 선점, 대형 유통망과의 장기 계약
품목명61		
의약품 및 의 료기기	선정사유	(파나마) - 의약품 수요 확대(만성질환 증가, 정부 의료제도 개선 노력) - 공공의료부문 현대화 추진을 배경으로 의료기기 시장 확대
	시장동향	(파나마) 한-중미 FTA 발효 후 의료기기 관세 철폐 예상,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경쟁동향	(파나마) 시장이 협소하고, 다양한 원산지의 제품 경쟁 치열
	진출방안	(파나마) 전략적 현지 파트너를 통해 공공·민간기관 입찰방식의 대량 주문 입찰 공략

##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1		
공장자동화 및 물류관리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멕시코) 멕시코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 자동화 수요 높음
	시장동향	(멕시코) 코로나 기간 노동 집약적 산업의 타격으로 공장 자동화 관련 수요가 증가하였음
	진출방안	(멕시코) -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는 IoT, 네트워크보안, 관리 솔루션 등 여러 품목이 필요함으로 연관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전반 진출 공략 - 제조-소프트웨어 기업 간 기술 협력, 인수 합병 등 협업 수요 종합적 고려
품목명2		
맞춤형 제품 추천	선정사유	(멕시코) 맞춤형 제품 추천 등 서비스로 고객경험 혁신(CX)시 가심비 공략 가능
	시장동향	(멕시코) 멕시코는 아직 가격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긴 하나 경험을 구매 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함
	진출방안	(멕시코) - 전시회 등에서 제품 시연을 통한 멕시코 바이어의 관심 자극. - 온라인 쇼 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용예시 제시
품목명3		
모바일 헬스케어앱	선정사유	(멕시코) 멕시코는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앱 시장 유망하며 웨어러블 기기 확대로 체진단 기능 활용 가능
	시장동향	(멕시코)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웨어러블 기기 사용 확대
	진출방안	(멕시코) - 체험판 등 활용을 통해 멕시코 소비자의 심리적 구매 장벽 완화 - 스페인어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 - 드라마 PPL,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활용해 유행에 민감한 Gen Z 공략
품목명4		
교육용 디지털플랫폼	선정사유	(멕시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가 개선되어 전자교육 시장도 동반 성장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디지털 전환 계획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19이후로 급격하게 높아진 온라인 교육 선호도와 페트로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교육 서비스 현대화 계획으로 인해 디지털 교육 부문 공공·민간 투자 확대를 전망
	시장동향	(멕시코) '22년 멕시코의 에듀테크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 인터넷 사용자의 45.3%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수강 (콜롬비아) 코로나 대유행 이후, 꾸준히 늘어난 온라인 교육시장은 초/중/고/대학교와 같은 공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같은 성인들의 추가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多
	경쟁동향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디지털 교육시장은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며 교육부문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진출방안	<p>(멕시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 프로그램부터 인터넷 강의 사이트, 기업용 대규모 교육 플랫폼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상이함으로 집중 타겟 설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 활용을 통해 더 다채로운 콘텐츠 구현</li> <li>-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 고려를 통해 고객층 확대</li> </ul> <p>(콜롬비아) 공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시장은 아직 개발 및 향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공급망 또한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음에 콜롬비아 교육디지털화 시장안의 기회 포착 가능성을 분석</p>
품목명5		
IT 서비스	선정사유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업체 I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IT 투자 대상국 중 9위를 차지</li> <li>-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와 달리 IT 산업은 브라질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전망도 매우 긍정적임</li> <li>- 브라질에는 실력 있고 경험 많은 IT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li> </ul>
	시장동향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C는 2023년 브라질 IT시장이 전년대비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li>- 컨설팅 회사 가트너(Gartner)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IT분야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약 3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되고 2025년에는 기업 간 거래의 80%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li> <li>- Google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브라질은 약 53만 명의 IT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진단됨</li> </ul>
	경쟁동향	<p>(브라질) 브라질에는 Microsoft, IBM, Facebook 등과 같은 더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IT 기업이 진출해 있음</p>
	진출방안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turecom와 같은 기술 박람회 참가하여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현지 기업들과 네트워킹 필요</li> <li>- IT 기술 서비스와 전문인력을 동시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li> </ul>
품목명6		
문화 콘텐츠	선정사유	<p>(브라질) K-Kop, K-드라마 등 한류가 큰 인기를 끌면서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p> <p>(아르헨티나) K-CULTURE의 현지 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K-POP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p> <p>(에콰도르)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인기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과테말라) 교포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도입 수요 존재</p> <p>중미 내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이며, 외국계 브랜드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시장</p>
	시장동향	<p>(브라질) 브라질에는 K-Kop, K-드라마 등에 열광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 중 특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드라마가 Netflix를 통해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함. 한국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Bom Retiro 지역의 경우, 식당마다 긴 대기 줄이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p> <p>(아르헨티나)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국문화원, 한인회 등을 통해 K-MOVIE, K-FOOD 등 한국 문화가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p> <p>K-POP은 여러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K-POP 안무(Choreography) 대회도 개최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한국 콘텐츠 소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p>

		<p>(에과도르) 한식당 및 한국식품점 증가, 한국 식음료 판매 업체 증가, 한국어 강좌 수요 증가, 한국 화장품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 교포 소비자(5천명)이 존재, 현지인들에게도 한류 영향으로 한식 관련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li> <li>- 외식비가 한국과 비슷한 시장으로, 중산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급 식당들이 많이 존재</li> </ul>
	경쟁동향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에는 일본과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문화 체험 공간이나 식당도 매우 많은 편임.</li> <li>- 일본이나 중국 명절에는 전통춤이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 자주 열림.</li> </ul> <p>(아르헨티나) 한국 문화와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안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려가 될 만큼 경쟁이 크지 않음.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적재산권(라이선스 등)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여 무분별한 비공식 소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 공식적인 에이전트 선정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시급</p> <p>(에과도르) 미국 및 콜롬비아, 스페인 콘텐츠 강세</p> <p>(과테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주요 브랜드(맥도날드, KFC, TACO BELL 등), 현지 자생</li> <li>- 브랜드(Pollo Campero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업 중</li> </ul>
	진출방안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드라마,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브라질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 등 정기적인 행사 지속</li> <li>- 브라질 인플루언서를 통한 한국 콘텐츠 홍보</li> </ul>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사업의 경우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li> <li>-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공연 서비스나 이벤트성 라이브 방송 진행, 라이선스 판매를 통한 현지 머천다이즈 제품 제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및 추진 가능.</li> </ul> <p>(에과도르) 한국 문화 행사, 한류 전시회 등을 통한 진출</p> <p>(과테말라) 현지 한식당들은 비전문가의 한인 대상 식당 중심으로, 현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된 한식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p>
품목명7		
게임서비스	선정사유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임 PWC에 따르면 2023년 브라질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20억 헤알(24억 달러)임.</li> <li>-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74.5%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li> </ul>
	시장동향	<p>(브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브라질에는 전자 게임(Electronic Game)을 즐기는 인구가 대폭 늘어남.</li> <li>- 전자 게임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힘입어 eSports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남. eSports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이나 심지어 프로축구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함</li> <li>- 현재 브라질 대형 채널에서는 프로게이머가 참가하는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생중계 되는 등 나날이 eSports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li> <li>- XDS (External Development Summit)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은 게임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거액의 투자가 브라질에 집중되고 있음</li> </ul>

	경쟁동향	<b>(브라질)</b> - 콘솔 게임의 경우, 일본의 Nintendo의 Nintendo Switch와 Sony의 PS4, 그리고 Microsoft사의 XBox가 시장을 양분 -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은 게임 콘텐츠를 배포하며 진출하였으며, 배틀그라운드, 서머너즈 워, MMORPG 장르의 게임이 많이 진출함
	진출방안	<b>(브라질)</b> - 브라질 현지 게임 회사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 Steam과 같은 멀티플레이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게임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함 - 게임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브라질 시장 진출 기회 모색.
품목명8		
물류서비스	선정사유	<b>(브라질)</b> - 브라질의 경우 물류비용은 높으나, 제3자 물류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
	시장동향	<b>(브라질)</b> - 브라질은 물류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으로 상품 배송이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지연되는 편임. - 브라질 물류 협회(ABOL)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서부지역의 37% 정도 진출해있던 물류 기업들은 2022년 62%로 진출 비중이 늘어남. - 물류 기업들은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타 지역 진출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Rappi, Log와 같은 물류유통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면서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b>(브라질)</b> - DHL, Fedex와 같은 외국계 물류업체 진출 - 다수의 물류 오피레이터, 운송 업체, 보관 업체 등이 존재 - Rappi, Log와 같은 스마트 물류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등이 영업중
	진출방안	<b>(브라질)</b> 현지 물류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9		
교육서비스	선정사유	<b>(브라질)</b> - 2억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교육 서비스는 시장규모 대비 품질이 낮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 - 브라질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시장동향	<b>(브라질)</b> - 2018년 브라질 교육부는 원격수업에 관한 법안을 개선하고 정부는 원격수업 가능 시간을 최대 40%로 늘렸음 - 201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매년 6% 증가하고 원격수업은 매년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b>(브라질)</b> Kroton, Estacio, Objetivo 와 같은 브라질 대형 교육 기업이 존재하며 Laureate, Devry 등 미국 교육그룹이 브라질에 진출
	진출방안	<b>(브라질)</b> - 교육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원격수업 확대와 관련, 콘텐츠 수요 및 기술이 요구 되는 바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기술 서비스 수출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

품목명10	
원격 의료	<p><b>선정사유</b></p> <p>(멕시코) 멕시코는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앱시장 유망하며 웨어러블 기기 확대로 체진단 기능 활용 가능</p>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는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 분야 정부 및 민간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함</li> <li>-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과 비교적 적은 인구 수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음</li> </ul>
	<p><b>시장동향</b></p> <p>(멕시코) ICT 인프라 보급 확대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의료 시장도 확대되고 있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p> <p>(칠레) 칠레 보건부(Ministerio de Salud)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칠레 의료의 50% 이상이 원격으로 이뤄짐. 그러나 원격 상담의 80%가 상담에 필요한 정보 보안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p>
	<p><b>경쟁동향</b></p> <p>(칠레) 현재까지 칠레에서 사용되는 원격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나, 미국 또는 유럽(특히 프랑스, 독일 등)에서 수학한 대다수 칠레 의사들이 Intouch Health(미국), Intuitive Surgical(미국) 기업의 고급 원격의료기기를 적시수요(On-demand) 형태로 수입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강함. 공공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격 의료장비는 화상회의 및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기초적인 장비인 경우가 많음</p>
	<p><b>진출방안</b></p> <p>(멕시코) ICT 인프라 보급 확대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의료 시장도 확대되고 있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p> <p>(칠레) 칠레 대형병원 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확립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p>
품목명11	
사이버 보안	<p><b>선정사유</b></p> <p>(칠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칠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파라과이)</li> <li>-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은 구 도심의 슬럼화, 마약 관련 범죄 확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일반 주택가에도 절도 사건이 빈번해 보안 서비스 수요 상승</li> </ul>
	<p><b>시장동향</b></p> <p>(칠레) 일간지 La Tercera에 따르면, 2020년 하루 평균 약 5,000회의 파싱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 은행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칠레 사이버 보안 분야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p> <p>(파라과이) 아순시온의 단위면적당(2.6 s/m) 감시카메라 수는 20대로 세계 주요도시(서울 332대, 인도 델리 1,827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보안 서비스는 아직 열악한 편</p>
	<p><b>경쟁동향</b></p> <p>(칠레) ITSec, Widefense 등 현지 중소형 기업 정도만 활동하고 있음</p> <p>(파라과이) Prosegur(스페인), G4S(영국) 등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b>진출방안</b></p> <p>(칠레)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 현지 시장 진출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함</p> <p>(파라과이) 생계형 범죄와 마약 범죄가 모두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규모가 작다는 점 등 현지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p>

품목명12		
전자 정부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공공서비스절차들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어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절차(특히 수출입통관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기를 원함
	시장동향	(콜롬비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전자 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소 적은 수이며 향후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를 전망
	경쟁동향	(콜롬비아) 정부 시스템·문화 등의 비슷한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 남미 국가 중 기술 성장이 비교적 높은 멕시코와 칠레를 콜롬비아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시장의 주요 진출 국가로 파악
	진출방안	(콜롬비아) 한국은 전자 정부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 시 발전 기술 전파를 중점으로 하되 콜롬비아의 공공서비스 절차 파악 후 그에 맞춤형된 시스템을 구축 및 수출해야 함
품목명13		
지적(토지) 시스템	선정사유	(콜롬비아) 현 정부는 토지개혁 및 불모지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큰 규모의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동 사업 진행을 위해 기술강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국토 교통부와도 '23년 7월 지식연수를 진행함
	시장동향	(콜롬비아) 동 사업 진행을 위해 기술 강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국토교통부와도 '23년 7월 지식연수를 진행함
	경쟁동향	(콜롬비아) 영국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영국국가들이 콜롬비아 지적 시스템 개발 협력을 진행 중
	진출방안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한국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측량 기술·토지 정보화 등의 정보기술 전수사업 또는 시스템 구축사업 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
품목명14		
의료시스템 융합 및 디지털 서비스	선정사유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의료 시스템 융합과 원격 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시장동향	(콜롬비아) 시스템 융합에 있어서 데이터 병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부재에 정부는 기술채택 및 유입에 큰 관심을 표하며 투자를 증가함
	경쟁동향	(콜롬비아) 정부는 선진적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 협력 추진 국가는 미국임
	진출방안	(콜롬비아) 한국기업은 정부와의 협업 및 공공 입찰 등의 콜롬비아 정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시장 진출 기회요소로 파악
품목명15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 유망</li> <li>- PMO 프로젝트는 자체비용 등과 같은 공사비용이 없어 순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됨</li> <li>-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리마 메트로 2호선 감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높은 평판 보유</li> </ul> <p>(에콰도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테말라 신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li> <li>- CABI 가입이후, 우리 기업의 CABI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대</li> </ul> <p>(파나마)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대 기조</p>

	시장동향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G2G PMO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정부에서 해당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주 중</li> <li>- 도시 재건, 도로 건설 PMO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 프로젝트 다수 발주 중</li> </ul> <p>(에콰도르) 인프라 개발 수요는 많지만 정부 재정 문제로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손쉽게 추진되고 있음. CABEL, IDB 등 국제기구 차관, PPP사업 등을 활용하여 전력 통신망 구축, 항만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함</p> <p>(파나마) 도로, 항만, 발전소 등 건설사업 추진</p>
	경쟁동향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등</li> <li>- 다양한 G2G 입찰 경험</li> </ul> <p>(에콰도르) 과테말라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언어적인 문제로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역내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p> <p>(파나마) 전통적으로 미국, 스페인, 브라질 건설기업이 장악</p>
	진출방안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팀코리아 구성, 진출지원</li> <li>- 정부 간 계약으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관 합동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사업 참여 추진</li> </ul> <p>(에콰도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공사 등이 수반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리스크 헷징 필요</li> <li>- 사전타당성 조사, 감리 혹은 기자재 조달 등 건설이 아닌 부가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li> </ul> <p>(파나마) 파나마 발주처와의 인맥 구축을 통한 입찰 정보 입수</p>
품목명16		
IT 및 스마트 시티 솔루션	선정사유	<p>(페루) 최근 치안/교통시스템 개선 방법에 대해 각종 지자체들에서 스마트 시티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 확대</p> <p>(에콰도르) 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등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심 증가</p>
	시장동향	<p>(페루) 페루 내 지자체들에 CCTV 등과 같은 보안 장비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장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초급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p> <p>(에콰도르) 에콰도르 3대도시 키토, 과야킬, 쿠엔카시를 중심으로 보안, 교통, 폐기물 처리, 전자 정부 등 스마트시티 계획추진</p>
	경쟁동향	<p>(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awei 등 중국계 SI 기업</li> </ul> <p>장점 : 파이낸싱, 주요 장비 등을 제공하고 수수하는 방식 단점 : 경험이 없고 구축된 플랫폼이 없음</p> <p>(에콰도르) 미국, 중국, 대만 및 에콰도르 현지 대기업</p>
	진출방안	<p>(페루) 관련 인콰이어리 발굴을 현지 주페루 대사관 및 KOTRA 리마무역관에서 진행 중이며, 팀코리아 등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에콰도르) KSP, EIPP 사업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추후 본 사업 수주로 연결하는 전략</p>
품목명17		



자동차설비 서비스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주요 자동차 생산 OEM, 1티어들이 현재 생산시설에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자동화 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 및 현지 제조기업(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 라인 증설 등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확대. RENAULT의 경우 현재 생산시설 설비 완공하여 하루 약 280대 생산 진행 중. - 자동화설비의 경우 지속적인 컨트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관련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 상존.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자동화설비 유지보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서비스 품질이 매우 중요함 -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특정 기업들이 존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실정.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대부분 프로젝트를 시공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진입 모색 필요.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우므로 관련 에이전트, 하청업체 등과 협력 방안 마련.
품목명18		
마켓플레이스 구축서비스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대부분 프로젝트를 시공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진입 모색 필요.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우므로 관련 에이전트, 하청업체 등과 협력 방안 마련.
	시장동향	(아르헨티나) -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현재 주요 SNS(Facebook, Instagram 등)에서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임. - 소비자와 구매자가 한 눈에 보인다는 점 등으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된 SNS기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소비자 위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아르헨티나) -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SNS 플랫폼 점유율이 매우 높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닌 이상 진입이 어려운 상태. - 현지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이 IT계열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임
	진출방안	(아르헨티나) -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 위주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기업간 마켓플레이스(B2B)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현지 시장 진입에 유리할 전망. - 예를 들어, 물류산업 중 개인 트럭운전수와 현지 운송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 에듀케이션 서비스(온라인 강좌 혹은 교수와 연결하는 서비스)등의 마켓플레이스 구축이 일반 소비자 마켓플레이스 구축보다 현지 진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
품목명19		
의료산업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정보 데이터화 필요로 인해 시장 형성. - 원격의료 플랫폼이 일부 구축 되어있는 상태이나 아직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님. (파라과이) 신정부는 주요 공약으로 보건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바 있음. 실제로 파라과이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여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수 (파나마)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기대(만성 질병 증가, 의료복지제도 확대, 장기적 경제성장 등)

	시장동향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헨티나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했으나, 인프라는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매우 노후화되어 있음</li> <li>- 특히, 진단에 필요한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등 결과는 모두 손수 전달되며 처방전 또한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사 변경시 환자의 병력 관리 등에 애로사항 발생.</li> <li>-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전달하는 등 디지털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의료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li> </ul> <p>(파라과이) 신정부에서는 병원 신설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음. 참고로 파라과이의 의료 사업은 선진국의 ODA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사립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음</p> <p>(파나마) 고가 사설병원과 질 낮은 정부운영 병원으로 양분</p>
	경쟁동향	<p>(아르헨티나) M Bionics (스페인), Henry Schein (스페인), Cloud X tech (미국) 등 유럽 및 미국계가 시장을 장악 이는 언어장벽(스페인어 사용 국가)이 큰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서비스업종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번역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이슈임.</p> <p>(파라과이) 미국, 대만 등 전략적 동맹국 우대 가능성 있음</p> <p>(파나마) 개인병원 클리닉 운영 다수</p>
	진출방안	<p>(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를 활용한 자동 번역서비스 제공이나, 스페인어 서비스 제공은 현지 시장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li> <li>- 아르헨티나 현지 의료시스템이나 의료서비스 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 현지 시장에 필요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p>(파라과이) 국립병원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므로 KOICA 등 ODA 사업 검토를 비롯, 파이낸싱 방안 마련 필요. 사립병원 프로젝트는 네트워킹이 좋고 과거 낙찰 경험에 있는 현지 업체와의 제휴 필요</p> <p>(파나마) 공공분야 추진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략</p>
품목명20		
인프라 건설 발전소설비	선정사유	(에콰도르) 에콰도르 정부 주도 엘니뇨 대처 관련,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긴급 전력 생산 확충 사업 다수
	시장동향	(에콰도르) 2023~2024년, 관련 사업 집중 추진 예정
	경쟁동향	(에콰도르)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에콰도르) 에너지부, 공공건설 교통부 통한 사업 정보 입수
품목명21		
정유 플랜트	선정사유	(에콰도르)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유 시설 확장 및 개선 필요
	시장동향	(에콰도르) 국내 3개 정유 시설 존재, 일평균 정유 능력으로는 에스메랄다스 정유소(110,000 배럴), 라 리베르타(45,000 배럴), 슈슈핀디(20,000 배럴)

	경쟁동향	(에과도르) 스페인, 미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에과도르) 에과도르 에너지부 입찰 계획 참조
품목명22		
핀테크	선정사유	(에과도르)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 활용도 증가
	시장동향	(에과도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및 마케팅 등 핀테크 수요 및 활용도 증가
	경쟁동향	(에과도르) 시간대가 비슷하거나 언어가 같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미국, 콜롬비아 등 업체 다수
	진출방안	(에과도르) 현지 인터넷 플랫폼 공략
품목명23		
콘텐츠	선정사유	(과테말라) - 과테말라에서도 YouTube, Netflix 등 인터넷서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고 있으며 BTS, 기생충 등 한국 문화의 아이콘들이 알려지고 있음 -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류 동호회, 커버댄스그룹 등이 구성되며 또래집단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음 (파나마) 현지 한국 문화 콘텐츠(드라마, 음악 등) 관심 확대
	시장동향	(과테말라) 대장금, 구르미 그린 달빛 등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으며 '20년에는 타요, 보로로 등 애니메이션이 방영 (파나마) SNS상 인기, 영화관에서 콘서트 상영, 영화상영
	경쟁동향	(과테말라) - 전통적으로는 동일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스페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 - 다만, Netflix 등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국경의 벽을 넘는 것이 수월해 지는 상황 (파나마) 상업적 콘텐츠 전파 경로 제한되어 경쟁이 적음
	진출방안	(과테말라) - 현지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유통 외국에서의 방영 이력을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음 - 한류를 기반으로 중남미 맞춤형 교육, 문화 등 콘텐츠 개발(스페인어 더빙/자막 필수) (파나마) 현지 유력 TV채널, 영화관-공연장 관계자를 통한 콘텐츠 전파
품목명24		
폐기물 관리 엔지니어링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폐기물 관리법 의회통과 유력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 기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플라스틱병 수거 캠페인 등 기업들의 자발적 친환경 운동 확산. 법안 확정시 10년 단위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쓰레기 분리수거, 폐기물 처리 환경 부담금 신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투자자에 대한 면세 혜택 적용 등 제도적 변화 예고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정부, 산토도밍고 시정부에 쓰레기 매립지 운영 및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협력의지 표명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ODA 연계, 관련제도 수립 및 폐기물관리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폐기물 활용 열병합 발전 등 현지 정부 관심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모델 제시

품목명25		
항만 인프라	선정사유	(도미니카공화국) 시설 현대화, 관광 활성화 및 수출증대 목표로 항만 인프라에 대한 민자 유치 확대
	시장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중미/카리브 물류 허브로의 도약 희망. 북부 만사니요 항구 복합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
	경쟁동향	(도미니카공화국) 중동(DP World), 멕시코계 컨소시엄(Puerto Plata Port Investment) 등 현지 항만기투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부 만사니요 지역에 대한 미국 및 중국기업들의 관심 높음
	진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고용창출 계획 및 관광/산업 인프라 연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을 통한 민간주도 민관협력 사업 선정 추진. 신정부의 친미 기조 고려, 미국계 기업 및 지역 연고 로컬기업 등과의 협력 검토
품목명26		
금융	선정사유	(파라과이) 언택트 문화가 상당 부분 정착되어 현금거래 위주였던 현지 결제 시스템이 다변화 되어가는 중. 다만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
	시장동향	(파라과이)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결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음. 아직 가상계좌 결제는 도입되지 않았음. 은행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경우 통신사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송금 및 수금
	경쟁동향	(파라과이) Itau,Sudameris등 각 은행들이 스마트폰 QR 결제서비스 제공 중
	진출방안	(파라과이) Itau,Sudamreis 같은 은행이나 Tigo 같은 현지 통신업체와 제휴하여 앱개발

##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1	소재·부품·장비 분야지원사업	자동차부품 종합행사 Korea Autoparts Plaza	5월/께레타로
2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GP 사업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꼬르도바
3		기계 전시회 EXPOMAQ	6월/과나후아토 레온
4		도미니카공화국 유통망 진입 지원 사업	2월 (연중)
5		칠레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연중/산티아고
6		한-칠레 공급망 협력 주간	4월/산티아고
7		군 관계자 초청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4분기/아순시온
8		소비재, 산업재 수입·유통업체 방문 상담회	2분기/몬테비데오
9		유망 소비재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4분기/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10		2024 파나마 종합전시회(Expocomer) 한국관 운영	3월/파나마
11		2023 한국-도미니카공화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	6월
12		2024 중남미 자동차 부품 전시회	7월
13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14		시우닷 델 에스테 카탈로그 대리 상담회	2분기/파라과이
15		페루 K뷰티 수출로드쇼 및 상담회	상반기/리마
16	의료 분야 진출지원사업	브라질 Hospitalar 전시회 한국관 바이어 초청	5월/브라질 상파울루
17		한국 GMES 전시회 바이어 초청	9월/원주
18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바이어 핀포인트 상담회	24년 2분기 혹은 3분기/서울
19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3월/서울
20		의료바이오 시장 토털패키지 사업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21	유망 소비재 진출지원	한국 소비재 행사 K-Lifestyle in Mexico	상반기/멕시코시티
22		EXPO KOREA 2023	11월/키토
23		신규 소비재 테스트마케팅 사업	연중/과테말라
24		K-Life Style in 도미니카공화국	11월
25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4월/서울
26		글로벌 모바일 비전 (Global Mobile Vision 2024)	11월/서울
27		한국 방산보안 수출주간(KODAS)	9월/서울
28		한국 콘텐츠 도입 및 공동개발 등 협력 지원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29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10월/서울
30	ICT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하반기/서울

연번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31		ICT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32		농업시장 테스트 마케팅	24년 2분기 혹은 3분기/ 아순시온
33	해외취업지원	중남미 청년취업 박람회	1분기/온라인
34	프로젝트	한-페루 프로젝트 민간 협의체 운영	연중 상시/리마
35		글로벌 ESG+ 사업	2~3분기 중/ 부에노스아이레스
36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5월/서울
37		한-에콰도르 에너지포럼	11월/키토
38		아르헨티나 폐기물 관리개선 사업	연중/부에노스아이레스
39		우루과이 폐기물/오수처리 기술협력 지원	연중/몬테비데오, 말도나도
40		MDB 차관 프로젝트 발굴·수주 지원	연중/한국
41		CABEI내 한국신탁기금(KTF) 활용 사업	6월18~20(잠정)/파나마
42		에콰도르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사업	연중/과야킬, 키토
43		현지 투자진출(P사 동반진출) 기업 지원	연중/살타
44		Global Project Plaza 파라과이 발주처 초청	5월/서울
45	FTA	중미 3국 FTA 수혜 품목 맞춤형 사업	연중/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46		국 섬유기계 및 관련 분야 기업 수출 지원 추진	5월 21~23/과테말라
47		과테말라상공회 협력 수입상담회	6월/과테말라
48	KSP	파라과이 패키징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4분기-'24년 상반기/아순시온및서울
49	무역사절단	전략품목에 대한 지역별 무역사절단	연중
50		화성시 중남미 사절단	4월/보고타
51		중남미 기계, 중장비 사절단	5월/보고타
52		중남미 뷰티산업 사절단	9월/보고타
53		2022년 해외 유망 전략무역사절단	연중/산티아고
54		KOTRA 지방지원단 에콰도르 무역사절단	10월/키토
55		전력기자재 온라인 사절단	9월/키토
56		공공조달 온라인 사절단	8월/키토
57		중남미 플랜트·기계 사절단	상반기/리마
58		경기 생활소비재 사절단	상반기/리마
59		에콰도르 방산 온라인 사절단	9월/키토
60		방산선도 거점 무역관 운영	연중 상시/리마
61	정상외교	G20 연계 한-브 미래협력 플라자	11월/리우데자네이루
62	수출 단계별 지원사업	페루 수출 중단기업 수출재개 지원사업	연중 상시/리마
63		내수기업 B2C 판촉지원사업	연중 상시/리마
64	미수교국과의 비즈니스 기회창출	2024 서울식품전 쿠바관 참가	6월 11~14/서울
65		2024 아바나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	11월/아바나
66		한-쿠바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연중/서울, 아바나
67		한-쿠바 다자개발은행 기술협력사업 (TC)	연중/서울, 아바나

##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주요내용	일시(잠정)	비고
(멕시코) 대선,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2024.6.2	대통령, 상원 128명, 하원 500명 및 9개주 주지사
(콜롬비아) ELN 평화협정 체결	미정	현재 평화협정 진행중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결선 투표)	2023.10.15	-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	2023.12.15	-
(에콰도르) 신정부 주요 장관 인선 완료 및 업무 시작	2024.1.2	-
(과테말라) 과테말라 대통령, 국회, 지방 선거	2024.1.14	대통령 및 국회 정권 교체후 신정부 임기 시작(4년제)
(도미니카 공화국) 대선 후보 발표	2024.3.5	-
(도미니카 공화국) 2024년 대통령, 상원, 하원 선거(1차)	2024.5.19	-
(도미니카 공화국) 2024년 대통령 선거(2차)	2024.6.30	1차 투표에서 최다 투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상원, 하원 취임	2024.8.16	-
(쿠바) 쿠바공산당 전당대회	1분기	23년 4분기에서 연기
(쿠바) 미국 대선	2024.11.5	-
(파라과이) 2024 G20 정상회의	2024	브라질 개최, MERCOSUR 회원국 초청됨
(파라과이)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2024.11	에콰도르 개최, 제29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
(파나마) 국가 총선(General Elections)	2024.5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내용	일시(잠정)	비고
(멕시코) 2024년 예산 발표	2024.9.8	·
(브라질) 지방선거	2024.10.6	브라질 26개주 전 지역 시장, 부시장 선출
(브라질) G20 개최	2024.11.18~19	리우데자네이루
(칠레) 기존 한-칠 FTA의 현대화	협약 예정	FTA 2004년 발효
(칠레) 기존 칠레-EU FTA의 현대화	협약 예정	FTA 2005년 발효
(콜롬비아) 태평양 동맹 정기회의	미정	·
(페루) 2025 페루 예산안 발표	2024.11	·
(페루)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2024.11	·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SEC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10	예상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와 FT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10	예상
(에콰도르) 중국과 FT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10	예상
(과테말라) 한-과테말라 FTA 협상	2024	'23년 중 정식 서명, '24년 중 국회 통과 및 발효 예상
(과테말라) 25년 예산안 발표	2024.8	·
(과테말라) 25년 최저임금 발표	2024.12	·
(도미니카 공화국)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1차) 발표	2024.3	·
(도미니카 공화국)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2차) 발표	2024.6	·
(도미니카 공화국) 중장기 예산 정책 발표	2024.6	·
(도미니카 공화국)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3차) 발표	2024.8	·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예산 초안 의회 제출	2024.9	·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예산 법안 의회 제출	2024.10	·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예산 승인 및 공포	2024.12	·
(파라과이)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2024.3	·
(파라과이) 남미공동시장 정상회의	2024.7	제63차 정상 회담
(파라과이)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2024.3분기	·
(파라과이) 최저 임금 발표	2024.7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국가	산업	전시회명	일시/장소
멕시코	제조업	Expo Manufactura	2024.1.30.~2.1/ 몬테레이
멕시코	산업	Expo Produccion	2024.3.13~15 / 멕시코시티
	보안	Expo Seguridad	2024.4.16~18 / 멕시코시티
	신재생에너지	Solar Power Mexico	2024.4.17~19 / 과달라하라
	신재생에너지	INTERSOLAR MEXICO	2024.9.3~5 / 멕시코시티
	신재생에너지	The Green Expo	2024.9.7~9 / 멕시코시티
	소비재	Expo Pack	2024.6.4~7 / 멕시코시티
	자동차부품	INA PAACE AUTOMECHANIKA	2024.7.10~12 / 멕시코시티
	의료기기	EXPO MED	2024.8.20~22 / 멕시코시티
	뷰티	EXPO BEAUTY SHOW	2024년 10월 중 / 멕시코시티
브라질	의료기기	치과학 전시회 [CIOSP]	2024.1.24.~1.27 / 상파울루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	2024.5.21.~24
	철도	철도산업 전시회 [NT Expo]	2024.3.10.~12
	기계	중장비 전시회 [M&T Expo]	2024.4.23~26
	농업	농업기술 전시회 [Agrishow]	2024.4.29.~5.03
	식품	슈퍼마켓 전시회 [APAS]	2024.5.8.~9
	보안	보안장비 전시회 [EXPOSEC]	2024.6.13.~15
페루	보안	SEGURITEC Perú	2024.4.22~24
	기계	EXPOMECHANICA & AUTOPARTES	2024.5.26~28
	화장품	COSMOBEAUTY PERÚ	2024.6
	기계	EXPOMINA PERÚ	2024.9.11~13
아르헨티나	농업	농업전시회 (EXPOAGRO ARGENTINA)	2024.3.5.~8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Buenos Aires 2024)	2024.4.10~13
	광업	광업 전시회(Argentina Mining)	2024.6(미정)
	건축	건축 전시회 (BATIMAT EXPOVIVIENDA)	2024.6.26.~29
	의료	의료 전시회(EXPO MEDICAL)	2024.9(미정)
	기계	일반 기계, 기자재 전시회 (EXPO FERRETERA)	2024.11.8~10
	자원	오일&가스 전시회 (Argentina Oil & Gas (Panorama Minero))	2024.10.23~25

국가	산업	전시회명	일시/장소
칠레	광업	세계 구리 회의 (World Copper Conference 2023)	2023.04.17~19
	광업	칠레 광업 박람회 (Expomin)	2023.4.24~28
	농업	칠레 스마트팜 전시회 (Cfiagrotech)	2023.9.5~7
	보안	칠레 보안 전시회 (SeguridadExpo)	2023.10.5~7
	의료	칠레 보건의료 박람회 (Expo Hospital)	미정
콜롬비아	자재	목재 가구 전시회	2024.5
	건강	국제 건강 전시회	2024.7
	식품	국제 식품산업 전시회	2024.6
	자재	국제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	2024.9
	산업	보고타 국제 산업박람회	2024.9
에콰도르	문화	Expo Korea 2024	2024.11
	광산, 장비	Expominas	2024.8
	화훼	Flor Ecuador Agriflor	2024.10.
	에너지	한-에콰도르 에너지포럼	2024.11
	석유	Ecuador Oil and Power	2024.11
과테말라	석유	Apparel Sourcing Show 2024	2024.5.23~25
	식품	FERIA ALIMENTARIA 2024	2024.9
	전기	FERRET EXPO 2024	2024.11
도미니카 공화국	관광	Bolsa Turistica Del Caribe (국제 관광전시회)	2024.7 / 산토도밍고
	건설	Construexpo (건설전시회) 격년	2025.5 / 산토도밍고
	종합	CamaraHUB (종합전시회)	2024.9 / 산토도밍고
	종합	Expo CIBAO (종합전시회)	2024.9 / 산티아고
	종합	Expo Comercial Asonahores (종합전시회)	2024.9 / 푼타카나
	종합	La semana pymes(중소기업 전시회)	2024.6 / 산토도밍고
	공급	Expo Provisiones (공급업체 전시회)	2024.6 / 산토도밍고
	건설	expo construccion (건설전시회)	2024.8 / 푸에르토플라타
	도서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도서전시회)	2024.8 / 산토도밍고
	식품	Agroalimentaria (농식품, 담배 및 음료 전시회) 격년	2025.5 / 산토도밍고
	농업	Feria Agropecuaria Nacional (국립 농업 전시회)	2024.3 / 산토도밍고

국가	산업	전시회명	일시/장소
쿠바	도서	국제도서전(FIL Cuba)	2024.2.8~18
	건설	국제건설전(Fecon)	2024.4
	관광	관광전시회(FIT Cuba)	2024.5
	식품	국제 식품 포장 기계/기술 전시회(Alimentos Cuba)	2024.5
	종합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	2024.11
파라과이	종합	파라과이 산업박람회 (EXPO)	2024.7
	종합	EXPO MAQUINA 2024	2024.8
	보건	EXPO FARMACIENTIFICA	2024.9
파나마	종합	파나마 종합전시회(Expocomer)	2024.3.5.~7
	자동차	파나마 자동차부품/타이어 전시회 (Latin Autoparts & Tyre Expo)	2024.7.31.~8.2
	주거	파나마 주택전시회 (CAPAC Expo Habitat)	2023.9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조윤후	차장	중남미지역본부	+52-56-4183-1132	jyhoo@kotra.or.kr
2	김재훈	대리	중남미지역본부	+52-56-4183-1711	jaehunkim@kotra.or.kr

\* 맨 끝에 작성자(해외, 국내 모두) 기입해 추후 고객문의 대응